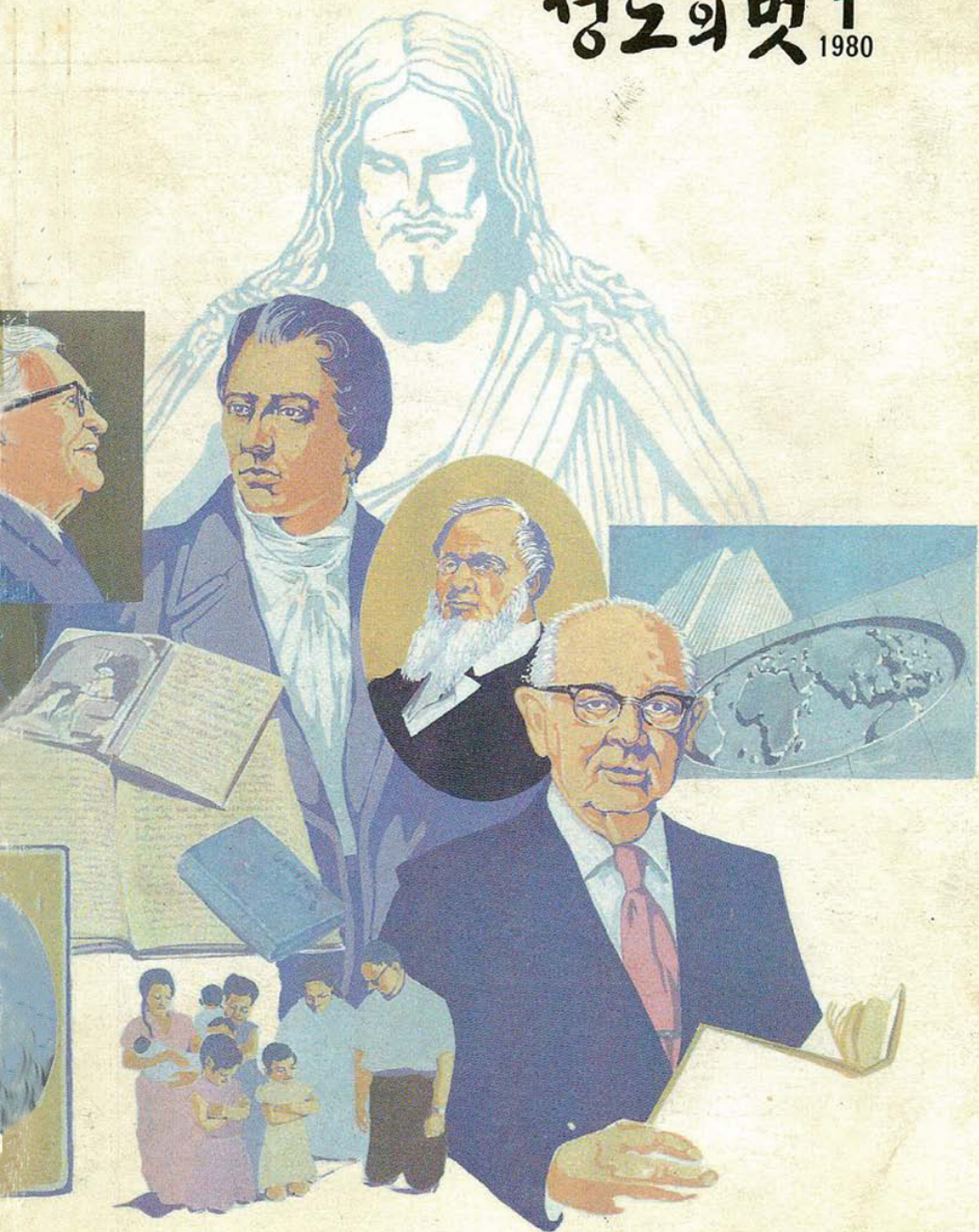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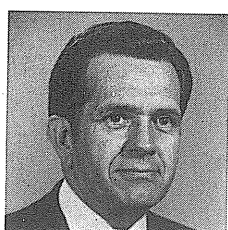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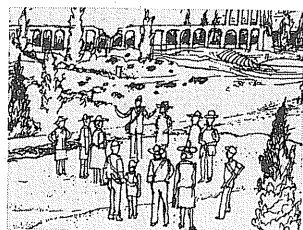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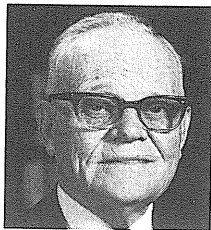


성도의 빛 1

1980





성도의 빛 1

차 례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엔 엘톤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튼 페리
데이비드 바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고문

앤 러셀 밸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휴 더블류 피녹크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리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년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년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라.....엔 엘톤 태너 부대관..... 2

교리와 성약: 주님의 음성.....닐 에이 맥스웰 장로..... 4

질의 응답..... 8

규칙에 규칙을.....제임스 비 앨런.....10

돌이나 떡이나?.....프란신 베니언.....16

독서 거룩한 특권.....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21

주님이 마련해 주심.....제이콥 햄블린.....22

계속해서 배움.....매리온 디 랭스 장로.....24

지진 속에서 활동한 가정 복음 교사.....에이치 브루스 보우먼.....26

친구가 친구에게.....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28

떨어지는 별들.....아이어리스 신더가아드.....30

심심풀이..... 34

후보 투수..... 36

내 친구 리이너.....제니퍼 알 그랜트.....38

내 일생에 관한 영화.....댄 린드스트롬.....39

인생의 기로에 서서.....크리스 제이 헨더슨.....42

아레오바고 언덕에서의 선교 사업.....키크 피 로벤버리.....44

인간이 경험의 세계를 넓혀 모험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발전하지 못한다.....로이든 지 데릭 장로.....46

지도 원리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윌리엄 지 다이어.....49

누구나 원하는 위니 선생님.....알 브르스 린지.....52

교회 지도자를 따르라.....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53

지역 지도자 메시지.....홍 무 광.....60

지역 소식.....61

통 권 : 제174호, 제16권 제1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0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틴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80년
 제174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인
 유진 피틴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라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짱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 : 18-21)

이 약속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포괄적인 약속의 하나입니다. 이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약속이 지혜의 말씀에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주님이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음을 유의하실 것입니다. 이 계명에는 모든 계명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너무 벅찬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오는 보상과 불순종을 통해서 오는 형벌을 잠시 생각하면 누구든지 불행보다는 오히려 행복을 누리기를 더 원한다고 말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종종 우리가 불순종하며 세상적인 쾌락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순종하면 언젠가 될 큰 축복과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생 동안에 일어날 일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낙천적인 생각과 자신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과거를 생각하고 있거나 자기가 할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회개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할 결의를 갖고 전진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함으로써만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자신이 노력을 기울이는 어떤 분야에서든 더욱더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부분과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알기 위해서만 다시 과거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성취한 일에 만족할 때 우리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진보하든가 퇴보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칭찬하기 위해 높은 발판으로부터 뒤로 물러서는 벽돌공과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땅히 성취해야 할 발전을 이루하였는가? 진실로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바로 이 시간부터 더욱 훌륭하게 행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뚜렷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항상 영생이 우리 각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침의 개요를 설정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며, 언젠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인생의 새로운 시기가 시

작됩니다. 회개에 관한 훌륭한 원리는 우리 각자가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전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약속된 보상을 가져다 줄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상속으로 얻지 못함이라.”(앨 5 : 51)

우리는 목표를 설정할 때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그러한 일을 극복할 수 있는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복합시다. 그리고 나서 나아가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악을 정복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그 일을 행할 것이며, 남자거나 여자거나 간에 개인의 자유의지에 지장을 주지 않고서도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설득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용서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써 인간의 자녀들의 마음과 애정과 영혼을 우리의 편으로 이끌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려 주신 진리를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나 정의나 진리의 유일하고 참된 근원을 바라보고 원천으로부터 그

러한 것을 받을 때까지는 결코 평화도 정의도 진리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복음 교리, 제 5 편, 제 15 장, 소제목 11, 253—54페이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품을 가장 엄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성품이 펼쳐진 책처럼 보일 수 있게 생활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위촉되거나 부끄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책을 가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도 그들의 허물을 지적할 수 없게 생활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무런 허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못을 행하지 않으므로 아무도 악행의 혐의로 그들을 정당하게 비난할 수 없으며, 아무도 ‘나약한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그들의 결점을 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을 받아 죄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생활할 방법입니다.”(대회보고, 1906년 10월, 8—9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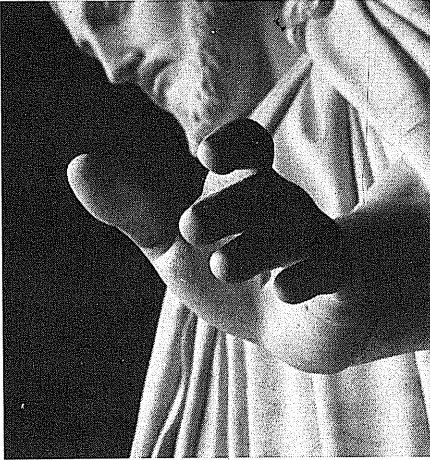
지금 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각자가 과거에 행한 것보다 미래에 더 훌륭하게 일할 것을 결심할 날과 시간과 때를 바로 지금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업은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도록 하십시오...그러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종교의 원리대로 실천하겠습니다...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활하고 나의 이웃과 정직하게 거래하겠습니다”(브리검 영, 설교집, 8권, 142페이지)

우리 각자가 마음과 가정에 가득 찬 사랑과 평화를 갖고 더욱 행복하고 밝고 뜻깊은 미래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

교리와 성약 : 주님의 음성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칠십인 제일정원회 회장단



어느 경전이 주님의 말씀에 “귀기울일” 기회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이 처음에는 신약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신약은 메시아의 업적과 많은 교리가 수록되어 있는 훌륭한 경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하신 진리의 보화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거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의 위엄과 권세를 느끼지 않고서는 다음에 소개하는 1831년에 받은 계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주님이 직접 전하신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자존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요, 영원히 광활한 넓음을 굽어 보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의 대군을 보며,

“모든 것을 아는 자니, 만물이 내 앞에 있음이라.

“말하매 세상이 만들어졌고 나로 말미암아 만물이 이루어지게 한 자니라.

“나는 에녹의 시온을 나의 품속으로 데려온 자니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흘린 피의 은덕으로써 나의 이름 곧 나 자신의 이름을 믿는 자를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였나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임이라.”(교리와 성약 38 : 1-4)

교리와 성약 1편 1절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를 봅니다.

“들으라, 오 너희 내 교회의 백성들아, 높은 데 거하여 모든 사람을 굽어 보시는 이의 음성이 말하노라.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어다.”(교성 1 : 1) 주님이 계속해서 “...주의 음성은...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교성 1 : 2, 4)고 말씀하십니다.

책의 첫 마디부터 마지막 구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들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간절히 권고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 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끝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교회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 장로들아, 다 함께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나의 왕국을 받았느니라.

“나의 모든 계명을 힘써 지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며 너희 신앙

을 잃지 않게 하며 너희 원수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지금은 이로써 끝냈노라. 아멘. 아멘.”(교리와 성약 136 : 41-42)

문자 그대로 주님은 수많은 구절을 통하여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계시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교성 9편 참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받은 나사렛 예수가 고통을 받는 요셉 스미스를 다음과 같이 위로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아들이, 평안할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교리와 성약 121 : 7)

“...무엇보다도 지옥의 바로 그 턱이 네게 크게 입을 벌려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교리와 성약 122 : 7)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 등급의 영광에 관한 중요한 계시를 받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마지막 일에 관련된 몇 가지 무서운 일이 있으리라는 것에 관한 시현도 받았읍니다. 이 마지막 일에는 악인들의 눈이 “안공에서”(교성 29 : 19) 빠지는 처벌이 포함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이전에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예언하였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백성에게 고하였던 것같이 이 일을 네게 이르노니, 지금까지 나의 말이 증명되어 온 것같이 이번에도 증명되리라.”(교성 5 : 20)

우리는 구세주께서 은하수를 관찰하시는 것을 볼 뿐 아니라 그가 올리버 카우드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며(교성 6 : 22) 시드니 리그돈의 개인적인 목표 중의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들추어 내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보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 주는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마음이 교만하여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성령을 슬쁘게 하는도다.”(교성 63 : 55)

따라서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교리와 성약의 계시는 주님이 시내산 위에서 직접 하신 것과 똑같은 현대의 계시입니다. 주님은 이 시내산 위에서 그의 말씀을 2개의 돌판 위에 친히 쓰셨던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은 특정한 계시를 직접 설명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성약을 맺은 다른 당사자들에게 주님께 관한 것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잃어버린 물몬경 번역 원고에 관한 일화에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인간은 실패함)와 사랑하는 주님의 완전한 지혜의 상호 작용을 봅니다. 주님은 일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의 교환을 배우도록 한 후에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교성 10편 참조)

우리는 전지하시고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며 그의 자녀들을 도우며 계시는 구세주의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은 구세주의 모습은 엘마가 루시퍼에 대해 묘사한 것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외곡시키려는

자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으며, 악마가 자기 추종자들을 마지막 날에 도우지 아니하고 급히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림을 알 수 있느니라.”(엘 30 : 60)

구세주께서는 항상 그의 예언자들을 도와 주십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사랑한 그의 종인 요셉 스미스를 도와 주셨으나 그의 목숨을 살려 주시지는 않았읍니다. “이제 나는 너 나의 종 요셉에게 명하노니, 회개하여 내 앞에서 더욱 올바르게 행하여 다시는 인간의 설득에 넘어가지 말라.”(교성 5 : 21)

주님이 그의 초기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임박한 순교에 대해 경고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순교하기 15년 전에 그가 계명을 굳게 지키는다면 “죽임을 당할지라도”(교성 5 : 22)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주님과 마주대하여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에서 우리는 가르치는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라, 너는 내게 간구하였고 내가 네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주었음을 알고 있으니, 내가 이 말을 함은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되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아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나는 이 일을 네게 증거하기 위하여 말하노니, 내가 지금까지 기록하여 온 것 곧 말씀은 참되도다.”(교리와 성약 6 : 15-17)

교리와 성약은 구세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의 능력과 그의 성품을 밝혀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그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없는 많은 진리를 알려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주의 첫째되는 율법의 하나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임에 틀림없읍니다. (교성 130 : 20-21 참조)

우리는 주님께서서는 결정을 내리는 데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겸손한 백성을 원하고 계시며 시온의 진영의 대원들에게 여행 방법이나 여행할 길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권고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 “내게 (그에게) 상관”(교성 61 : 22) 없기 때문입니다.

피가 흐르는 지친 팔에 의지하여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은 진실로 깊은 사랑이 아닐 수 없읍니다. “...쳐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교성 81 : 5)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 묘사되어 있는 완전한 성품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절히 권고하시는 주님의 완전한 성품입니다. 어떤 때에는 그분의 온전한 성품은 다음과 같이 위풍당당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나 전능한 자가 세상 사람의 죄악을 징계하려고 여러 국민 위에 나의 손을 얹었음이니라.”(교성 84 : 96) 또 다른 때에는 그분의 온전한 성품은 이와 같이 위풍당당하게 나타납니다. 수세기 전에 백부장에게 그의 두터운 신앙(눅 7 : 6-10 참조)을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저의 마음이 고결하므로...저를 사랑하는 연고니라.”(교성 124 : 15)

구세주의 표준이 각 페이지를 모두 밝혀 주고 있습니다. 원래의 십계명 중의 하나는 “간음하지 말찌니라”(출 20 : 14)입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적절하게 예수님이 성지에서 그의 지상의 성역을 베푸실 때 처음으로 정신적인 간음에 대해 경고하신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신앙을 부인하는 자라. 영을 지니지 못하리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어 쫓기리라.”(교성 42 : 23)

탐욕이 가득한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경교가 있습니다.

“심령은 상하지 아니하고, 심정은 애통하지 아니하며, 배는 만족을 얻지 못하며, 손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며 놓지 아니하며, 눈에는 탐욕이 가득하며, 제 손으로 몸소 일하려 하지 아니하는 너희 가난한 자에게 화 있도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고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정을 지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들을 구원하려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것임이라. 땅의 풍족한 것이 저들의 것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6 : 17-18)

사랑하는 주님은 많은 경교뿐만 아니라 에드워드 패트리지에게 성스러운 계명을 주셨는데, 주님은 그를 옛날의 나다니엘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연약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은 이같이 대단히 칭찬한 후에 패트리지 감독에게 정확히 경교하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코로 이 일에 대하여 에드워드 패트리지는 옳지 아니하다. 그러나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라. 그리하면 용서받으리라.”(교성 50 : 39)

1831년은 참으로 훌륭한 해였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이는 교리와 성약 37권에 실려 있는 계시를 받은 해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편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45편을 읽으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적절한 범위내에서 앞으로 있을 훌륭한 사건과 무서운 사건을 모두 충분히 알려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36년 4월 3일에 커틀랜드 신전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직접 나타난 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견히고 이해의 눈이 열리는지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흥벽 위에 서 계시더라. 주의 발 아래는 호박색 순금이 깔려 있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은 그 회기가 깨끗한 눈 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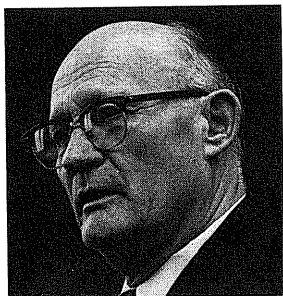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증보자니라.”(교리와 성약 110 : 1-4)

진실로 우리가 교리와 성약의 계시를 깊이 생각하면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라.”(교성 76 : 22)라고 기록할 때 진리를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이 성스러운 경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은 더욱 강한 간증을 가질 것이며 과거보다 구세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로이 더블류 독시
협의 평가 위원회 책임자

“우리가 현대의 계시를 믿고 있으므로 현대의 계시는 지금도 기록되고 출판되며 성도들에게 알려집니까?”

이 질문은 경전과 신앙개조 제9조가 끊임없는 계시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믿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표준 경전의 하나인 교리와 성약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 동안 받은 대부분의 계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받아 기록한 계시가 모두 교리와 성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고려할 점은 공식적인 계시(교리와 성약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기록된 계시)와 비공식적인 계시(영감으로 받은 계시, 구어로 전해지는 계시, 이러한 계시는 때때로 발표된다.)와의 차이점입니다.

교회 대관장만이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으며,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인 다른 사람들은 교회 대관장의 지시를 받아서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교성 68 : 4 참조)을 발표할 권리와 권세와 권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신으로 감동되어 말할 때 그들의 말은 경전의 말씀이 됩니다. (교성 68 : 4 참조) 그러나 듣는 자나 읽는 자는 그들이 성신의 감동을 받아 말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는 계시를 준 것과 똑같은 영의 권세로써 압니다. (교성 50 : 21-24 참조)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들의 영감받은 지시는 경전의 말씀이 됩니다. 그들은 매주 목요일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모임을 가지며,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이었던 존 에이 윌소 장로의 경험은 중요한 점을 설명해 줍니다. 교회가 언제 마지막 계시를 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아마 지난 목요일이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외에 영감을 받는 때는 매년 2회에 걸쳐 개최되는 교회의 대회 시간입니다. 교회의 대회 진행 순서를 잘 아는 사람은 대회에서 주어지는 권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일성도들이 성공적인 생활의 열쇠가 되는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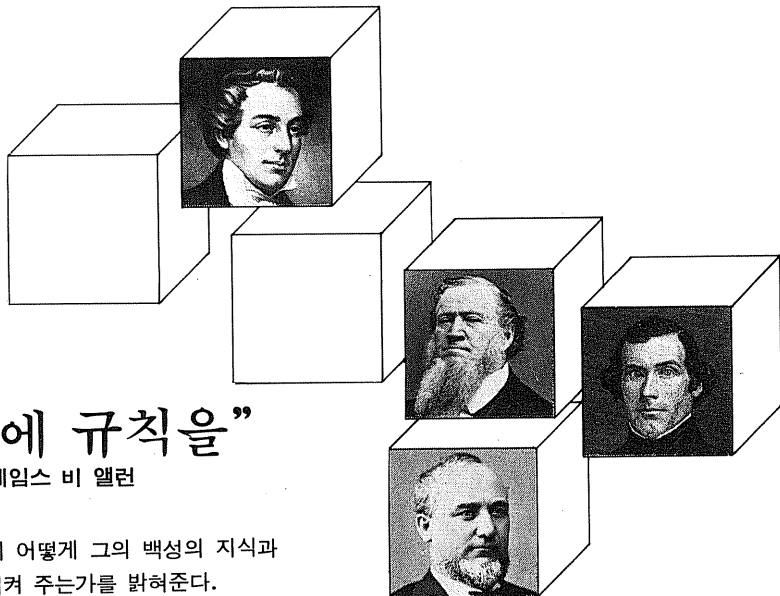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교회의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일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3일 동안의 대회에 참석하여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심해 오던 문제에 관해서 이 대회보다 더 영감에 찬 명쾌한 대답을 얻은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다음 6개월간의 그의 지침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시거든 본 대회의 말씀이 적힌 책자가 나오는 대로 한 권 구입해서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의 문제에 관한 한 주님께서 하신 최근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자들도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은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교성 68 : 4참조) 될 것입니다.”(대회 보고, 1973년 10월

168페이지 : 1979—80년도 벨기세텍 신 권 개인 학습 지도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제9과, 50페이지)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한가지 구분해야 할 것은 경전에 계시를 추가할 때 만장 일치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값진 진주와 교리와 성약은 1880년 10월 대회에서 발표하여 교회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읍니다. 또 1976년 4월에 개최된 교회 대회에서 2개의 중요한 계시를 값진 진주에 추가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절차는 표준 경전에 자료를 추가시키는 것에 대한 찬성을 얻고 교회의 회원들로 하여금 추가된 원리대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든 이러한 조치에 관계없이 계시는 효력을 미칩니다. 비공식적인 계시나 영감은 교회 대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대관장단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기록에서도 주어집니다. 계시는 반드시 기록하거나 발표할 필요가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말일성도들은 의사 소통의 수단에 관계없이 살아 있는 예언자들의 권고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많은 계시와 마찬가지로 계시는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도다.”(교성 36 : 1 참조) 또는 “이는 ...계시니라.”(교성 84 : 1) 또는 “들으라...주님의 음성에...귀를 기울이라.”(교성 72 : 1)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에 관한 하나의 시험 방법은 성신의 증거를 구하라는 주님의 지시입니다. 계시를 준 영은 교회의 충실한 회원에게 계시의 참됨을 증거해 줍니다. *



“규칙에 규칙을”

제임스 비 앨런

교회사는 주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의 지식과 이해력을 증가시켜 주는가를 밝혀준다.

1836년 1월 21일 저녁에 교회 대관 장단과 축복사 요셉 스미스 일세는 커틀랜드 신전의 한 방에서 촛불을 밝혀 놓고 특별 모임을 갖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 위에 여러 하늘이 열렸으며, 그들은 몇 개의 중요한 시현을 보았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해의 왕국을 보았으며, 해의 왕국 주민들 가운데 오래 전에 죽은 그의 형 알빈이 있음을 보았다. 이 사실을 알고 예언자는 놀랐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시키는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알빈이 이 세상을 떠났고, 죄 사유함을 위한 칙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았던지라 그(알빈)가 어떻게 그 왕국에서 상속의 땅을 받았는지 기이하게 생각하였느니라.”(값진 진주, 요셉 스미스—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 1:6)

합당한 권능으로 베풀어지는 칙례를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회복된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로 내세에서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요셉 스미스에게도 새로운 개념이었다. 그러나 몇 가지 새로운 지식이 이제 막 교회에 알려지려 했다. 예언자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기이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로서 지상에 더 머물러 있었을진대 복음을 받아들였을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부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될 자로서 복음이 전해졌더라면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받아들였을 자들도 모두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니,

“이는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업적과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하겠음이니라.”(값진 진주, 요셉 스미스—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 1:7-9)

그후 수년이 지난 뒤에 다른 예언자인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속죄에

관한 성구를 꼼꼼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까지 교회는 죽은 자를 위한 구세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으나 아직 구세주께서 돌아가신 직후 영의 세계에서 행하신 그의 사명에 관한 자료가 없었다. 스미스 대판장은 주님이 영의 세계에 머물러 있던 짧은 기간에 어떻게 육에 갇혀 있는 모든 영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상히 생각하고 있는 동안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이해력이 새로와져서 나는 주님께서 악한 영들과 진리를 거부하고 순종치 아니한 영들을 가르치려 그들에게 친히 가지지 않았음을 알았느니라.

“그러나 보라, 그는 의로운 영들 중에서 택하여 그의 군대를 조직하시고 사자들을 임명하시어...”(값진 진주, 조셉 에프 스미스—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 1: 29-30)

이 두 가지 경험은 회복된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 즉 살아있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현대에도 계속해서 계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주님은 “충실한 자에게는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실 것이요”(교성 98: 12)라고 말씀하셨다. 브리감 영 대판장은 성도들에게 지식과 이해력은 서서히 얻게 되는 것이며 어떤 계시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 모든 것을 밝혀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지상의 어떤 정부도 완전한 헌법과 법률을 갖고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밝혀 주신 많은 계시 가운데 충만하고 완전한 계시가 하나뿐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한 그 계시에는 정확한 교리와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주민으로서 무능하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비굴하고 죄 많은 자들은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설교집, 2: 314)

우리는 교회사에 대한 지식으로 이것이 진실로 사실임을 인정하게 된다. 성도들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에 따라 새로운 지식이 알려졌고, 교회 프로그램이 새로운 목표에 대처하기 위해 수정될 필요에 따라 예언자들은 프로그램을 확립하도록 영의 지시를 받아 왔다. 교회의 몇 가지 중요한 의식과 가르침에 관한 역사적인 발전은 이 과정이 어떻게 계속되었는가를 보여 준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변화는 특정한 외형적인 의식과 절차와 관리 임무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점 전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는 교회의 필요와 관련해서 특히 최근 수년 동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요셉 스미스는 일찌기 1842년에 이를 내다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상황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 다른 상황에서는 올바른 것이 될 수 있으며, 지금도 종종 그렇습니다.”(교회 정사, 5: 135)십이사도 평의회는 일원인 울슨 프랫 장로는 1877년에 그 말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다. 이때는 교회가 여러 분야에 관해 완전한 조지를 갖추던 시기였다. “불완전하고 약한 이 교회의 역사에는 언젠가 조지가 완전하게 되어서 더 이상 조

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지 않을 때가 있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와 율법을 더 많이 앎에 따라 조직은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한 등급에서 다른 등급으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설교집, 19 : 12)

1962년 그 당시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이었던 해럴드 비 리 장로는 그와 같은 원리에 대하여 매우 실질적인 현대의 예를 들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흥미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나는 맥케이 대관장께서 교회 회원들에게 다른 총관리 역원이 전혀 참석할 수 없을 때 칠십인 제일 평의회의 회원들이 유익하게 일하고 업무를 행할 권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대제사로 성임받을 것이라고 발표하셨을 때를 상기합니다. 나는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내려갔었는데 마음에 큰 혼란을 느끼고 있던 어떤 칠십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초기에 대제사들을 명명할 때 그들을 칠십인 제일 평의회 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하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나는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은 1840년에 하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1960년에 하늘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제님이 아시다시피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칠십인은 ...죽은 예언자를 따르고 있었으며, 오늘날 살아 있는 예언자가 있음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 있는’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살아 있는 예언자, 선전자, 계시자의 위치, 브리감 영 대학교 신학 연구원 교사 모임 말씀, 1964년 7월 8일)

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명백하게 보이는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거나 이룩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예언자의 지시에 따라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곧 끊임없이 계시가 주어진다라는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다.

집합의 교리에 대한 지식은 어떤 상황에서서는 올바른 것이 다른 상황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고 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을 설명해 준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관련된 기본적인 교리의 원리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시대의 요구와 사정에 따라 주님이 그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주셨다. 이와 같이 계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어진다.

초기에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에는 성도들이 시온의 땅으로 특히 교회 본부로 집합해야 한다는 계명이 가득 차 있었다. 1840년에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국의 건설은 “반대하고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성도들의 집결을 요할 것입니다. ...열성적으로 진리를 전파하고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성도들의 집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교회 정사, 4 : 185-86)

다른 일 중에서도 특히 이로 인해 체계적인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 본부가 유타주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야 강화되었다. 1847년 십이사도 평의회는 유럽의 성도들에게 “가능한 한 속히 이곳

으로 이민을 오라”고 권고했다. 그들은 미국의 서부에 성도들의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촉진시켜 줄 모든 것을 가져 오라는 권고를 받았다.

집합에 관한 이와 같은 개념은 2세대 이상 동안이나 강경하게 가르쳐지고 나서 유럽의 성도들에게는 제이의 친성인 습관처럼 거의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그러나 1890년대 후기에 이르러 사정이 바뀌고 있었다. 교회는 서부의 정착지에서 확고한 기반을 잡았다. 왕국은 새로운 땅에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개척의 시대는 지나갔으며, 새로 당면한 목표는 전세계에 시온, 즉 “마음이 청결한 자”(교성 97 : 21)가 모이는 곳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확실히 초기부터 교회의 막중한 사명이었다.

이러한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일로 인해 교회 지도자들은 수행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였음이 틀림없다. 1898년에 대관장단의 일원이었던 조지 큐 캐넌 부대관장은 여러 나라의 성도들에게 “잠시 조용히 있고 시온으로 집합하기 위해 그들의 고국을 떠나는 것을 열망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다음해에 성도들이 자기 비용으로 집합하러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정책에 대한 변경 조치는 급속도로 취해졌다. 교회는 여러 선교부에 영구적인 본부를 더 많이 건립하고 개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국에 그대로 남아 있도록 권장하는 대책의 하나로서 더 많은 예배당을 건립하는 일에 착수했다. 1910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스웨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민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확고한 신앙을 가질 때까지 그 대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1958년에 유럽에 있던 세 명의 선교 부장은 “테르슈테른”지에 강경한 어조로 표현된 사실을 실었는데, 이 사실에는 해외에 시온을 건설할 필요성이 요약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의 집합을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든 백성에게 영적인 바빌론에서 나오라고 외칩니다. 영적인 바빌론에서 나온다는 것은 영적인 암흑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집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으로 이민하도록 권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도들에게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 즉 시온의 스테이크를 세우고 주님의 왕국의 경계를 넓히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의 교회를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계의 정세는 아주 일변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알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발전은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이외에 다른 것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분명히 관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에 관한 역사 기록은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실 것이요.”(교성 98 : 12)라는 개념이 점점 밝혀지고 있음을 알려 준다.

예를 들면, 1830년에 교회가 조직된 이래 말일성도들이 신회의 본질에 관해 더욱 잘 알고 있음을 관찰하는 것은 흥

미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개체이시며 또
 는 인간은 기도로써 하나님과 직접 교
 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성도
 들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요셉
 스미스는 교회가 조직되기 수년 전에 시
 현에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나 창세기에 요셉 스미스의 첫번
 시현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던 교회 회
 원은 소수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처음
 에는 그가 첫번 시현에 관한 기록을 널
 리 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만
 1838년에 “악의와 악한 계획을 가진 사
 람들이 유폐시킨 많은 풍문”(요셉 스미
 스 2서 : 1)을 바로잡기 위해 그는 첫번
 시현의 기록을 출판할 준비를 했다. (요
 셉 스미스 시현) 따라서 교회사의 초기
 의 수년 동안 신회의 완전한 본질에 대
 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대부분의 새로운 개종
 자들은 과거에 속했던 종교에서 배운 견
 해를 일부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더우기 그들의 견해가 몰몬경의 초판에
 기록된 몇 구절로 인해 더욱 확고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구절들은 아
 버지와 아들을 명확하게 구별해 주지 않
 았다.

몰몬경의 초판에 기록된 대부분의 구
 절은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
 명히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어떤 구절
 은 여전히 일부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
 할 수 없었으며 오해하기 쉬운 것이었
 다. 1916년에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
 의회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신중히 마련된 교리 해설을 발표하였다.
 이 해설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특히 예
 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경전에서 여러 가
 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혀 주

었으므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에
 게 도움이 되었다.

교리와 성약 1835년판에는 비공식적
 인 것이기는 하였으나 교회 신조에 관
 한 초기의 중요한 성명이 포함되어 있
 었는데, 이것은 신앙 강화로 알려졌다.
 이때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
 과 뼈로 된 육체를 갖고 계신지 또는 성
 신의 본질에 관한 계시를 전혀 발표하
 지 않았다. 따라서 신앙 강화 제 5장에
 는 오늘날 교회 회원이 이해할 수 없는
 신회에 관한 불완전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요셉 스미스는 이 문
 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아
 니하였음이 틀림없었다. 우리는 그가 이
 주제에 관한 새로운 계시를 받은 정확
 한 시기를 모른다. 그러나 1843년 4월
 2일에 그는 일리노이주 라므스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육 사항”을 가르쳤다.
 여기에는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명확하
 게 신회의 본질 특히 성신의 특성에 관
 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후 이 교
 육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교리와 성약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나니, 아들도 그러하
 니라. 그러나 성령은 살과 뼈의 몸이 없
 으시고 다만 영적 존재시니라. 만일 그
 령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
 하실 수 없으리라.”(교성 130 : 22)

그후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가장 유명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때는
 우리와 같은 분이였으며 지금은 승영하
 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고 사람끼리 마주 서서 이야기하듯 우

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도 한때는 오늘의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의 첫번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한때 이 지상에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교회 정사, 6:305, 성도의 빛, 1972년 4월호, “킹 폴렛트를 애도함”, 17-18페이지)

요셉 스미스는 사망하기 불과 2개월 조금 전에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 많은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 주었으며 성도들이 오늘날 알고 있는 신화에 관한 폭넓은 지식의 기초를 놓아 주었다.

이러한 것은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으나 말일성도는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수년에 걸쳐 “규칙에 규칙을 더하며” 그들의 지식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특정한 역사적 배경과 관계가 있는 몇 가지 두드러진 변화도 있었다. 이외에 다른 변화는 교회 지도자가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계시를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구함에 따라 오는 세련됨을 반영한다.

교회의 견해와 정책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각 세대의 예언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통찰력과 지시를 구하기 위한 문은 열려져 있다.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쓸 때 이 약속을 강조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는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 9조)

복음에 관한 지식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이와 같은 개념은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

자들은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요동”되는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엡 4:14 참조) 우리가 설명한 것과 같은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진리와 기본 원리는 변치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한 진리와 기본 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사명과 속죄를 믿는 신앙, 요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신권의 권세와 권능에 대한 믿음과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한 신권의 권능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 물몬경의 참됨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본 시현과 그가 받은 계시의 참됨에 대한 믿음 또한 교회에서는 끊임 없이 성스러운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포함된다.

우리는 관리 대제사인 교회 대관장만이 새로운 계시를 발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서 지지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이 1954년에 교회 신학연구원 교사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던 것과 같이 예언자만이 “새로운 것이든 수정된 것이든 간에 교회를 위해 계시를 받거나 교회에 구속력을 미칠 경전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을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교회의 현 교리를 변경할 권리를 갖고 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점의 하나는 우리가 교회의 프로그램과 가르침이 발전되고 확장된다는 사실과 계시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발전이 더 많이 이루어지더라도 말일성도들은 놀라지 않아야 한다. 그들은 다만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러한 발전이 계시로 밝혀진 종교의 정수가 아닌가? *



돌이나 떡이나?

프란신 베니언

예수님은 우리가 응답을 간구할 때를 위해서
위안을 주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살쯤 먹은 나의 딸아이가 어느 날 생각깊게 할머니를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의 발은 정말 큰데요.”

“알고 있단다. 린, 하지만 발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별로 없구나.” 할머니가 말했다.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린이 대답했다.

“뭐라구?”

“할머니께서는 기도하실 수 있어요.”

린은 할머니가 발에 대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나는 할머니가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만 기도하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일을 위해서든지 기도할 수 있단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원하는 것과 똑같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도록

간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에 대처하며 생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더 낫단다.”

“왜 그래요?”

“배움이란 우리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야. 게다가 만일 두 사람이 각각 다르게 어떤 일의 결과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니?”

“아아,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군요.”

다섯 살 먹은 칠없는 린은 우리 대부분이 아직도 더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문제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해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요 14:13)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다음 성구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

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 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잊게 하리라…”(교성 9 : 8, 9)

하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다른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교성 4 : 7)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메시지는 모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설교 가운데 그러한 메시지가 다음과 같이 매우 분명하게 표현된 것을 읽을 수 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눅 11 : 9)

그러고 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을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아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누가복음 11 : 11-13)

이 성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신다는 사실을 알려 줄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대부분이 기도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주기도 한다.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알아 차릴 수 없는 딱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을 주신다고 생각한다. 다

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성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결코 돌을 주시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려 준다.

우리는 모두 다음과 같이 간증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잃어버린 지갑을 찾을 수 있는 장소라든가, 결혼 상대자라든가, 선택할 직업이라든가, 자녀들에게 방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았음을 간증한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감명깊은 간증을 드리곤 한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감을 느끼거나 어찌면 이와 같은 단언으로 인해 죄의식을 느낄지도 모른다. 내가 “항상 기도하라”는 계명은 우리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주님이 “항상 응답할”의 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절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도움이 되었다. 주님이 선택하며 응답을 주신다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 각각 다르게 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였으나 중요한 문제에 내해 아무런 인도를 받지 못했음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의 신앙이 약하거나 하나님께서 아무 도움도 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계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실 수 없거나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우리 각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개인적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경험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본보기는 될 수 없다. 우리의 필요 사항은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개인의 필요 사항에 따라 주어지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다르다.

결혼 전이나 결혼한 이후에도 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그렇지 않은 특별한 일이든 어떤 일에서나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나는 이러한 일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 처하였을 때 나는 주님의 도움도 응답도 심치어는 그의 영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나는 브리검 영 대학교 2년생일 때 봄을 만났다. 나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없다면 내 자신이 고독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결혼 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생활 방식의 차이점이 있음을 알았다.

봄이 나에게 결혼을 신청했을 때 나는 내 자신의 결정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의 결정이 옳음을 확인해주시도록 간구했다. 봄과 결혼하는 것이 옳은 일이면 나의 마음속에 “뜨거운 느낌”(교성 9:8 참조)을 느끼게 해주고 시 또는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면 “무감각한 느낌”(교성 9:9 참조)을 주시도록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했다. 나는 뜨거운 느낌도 무감각한 느낌도 갖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신앙이 부족한 탓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서 나의 간구를 다른 말로 고쳐 파혼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여쭙어 보았다. 다시 나는 뜨거운 느낌도 무감각한 느낌도 갖

지 못했다.

우리가 서로 만난 후 21개월이 지난 뒤 나는 신전에서 결혼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또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갖지 않고 엘버타 신전에서 봄과 결혼했다. 나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위험하되 어떤 보장이 없는 관계를 갖도록 자신을 맡기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증인들 앞에서 서로에게 약속을 했다. 그렇게 자신을 맡기고 그러한 약속을 맺은 것은 스스로 행한 것이었다. 지금 나는 그렇게 행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고서 그렇게 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한 일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남편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보장해 주시는 것을 희망하였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결심하도록 요구하셨다. 함께 친밀해지는 과정에서 봄과 나는 모험, 슬픔, 발전, 동일성과 그리고 큰 기쁨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응답을 필요로 한다. 나는 이미 내가 말한 방법으로 성장하도록 침묵의 응답을 필요로 했다. 아마도 나의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성령의 증거를 얻지 않고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나는 확신한다.

나처럼 자신의 생애 동안 위기에 처하여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선한 사람이 되기

를 원하며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거나 하는 데 부적당하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종종 지시나 도움을 얻기 위해 신앙으로 간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을 믿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갈등 때문에 지혜와 능력과 신앙과 사랑이 풍부해지거나 발전하거나 두터워졌다고 말한다.

때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남편이 십대 후기에 이르렀을 때 물론 경을 읽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발걸음을 크게 내딛을 준비를 갖추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두려운 행동을 하기를 뒤로 미루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말을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 말에서 내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주님이 그와 교통하실 경우 일어날 개인적인 변화와 책임에 대해 꿈꿈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주님의 승인을 갈망하는 것만큼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그가 주님과 교통으로 인해 일어날 큰 변화를 경험하기를 진실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분명히 알도록 간구한다면 주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말을 타고 그곳을 떠났다.

그후 몇 개월이 지나 그는 다시 주님께 나아갔다. 이때 그는 주님과 교통하

고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더욱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때 주님은 응답해 주셨다.

처음에 마지못해 했던 분은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봄이었다. 그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했으며, 주님이 그를 좋게 생각하시기를 원했으나 완전히 세상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복음이 참됨을 모르고 있었고 진실로 발전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주님은 그가 자기 마음을 알고 있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셨으며 두 가지 경우에 모두 그로 하여금 가장 진실한 소망을 표현하게 하셨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존중하는 “숨겨진 소망”이 있다. 우리의 숨겨진 소망이 우리가 가장 잘 의식하고 있는 소망이다. 이같이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교성 36 : 7 참조) 자신을 준비하라고 종종 권고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그들의 기도에 관한 경험에 대해 감사한다. 그러나 수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갈등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은 것 같으나 신앙을 키워주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약간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알아 차릴 수 있는 응답이 없는 기도에 관한 그들의 문제는 비교와 추리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일기의 방해가 있든 없든

또는 건강이든 고통과 사망이든 간에 그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그때 “가장 큰 유익”을 알거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또한 우리가 고통이나 슬픔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응답에 대한 증거를 보지 못하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나 선하심이나 그의 권세나 특히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의심하면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무응답”이나 알아 차릴 수 없는 응답은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개인의 신앙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개인의 이해력의 힘이 된다. 그러한 신앙과 이해력의 힘은 그가 응답을 모르고 있는 기도에 대한 그의 느낌을 결정지어 준다.

우리의 경전은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의 권세와 권위를 찬양하라고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의 신뢰와 찬양과 영광과 존경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신다고 믿는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계신다. 오히려 우리가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써 갖게 되는 신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이다. 우리는 그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고서는 세상이나 그 고통과 슬픔을 이해할 수 없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이유는 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

하도록 주신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유대인과 니파이인과 기독교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기꺼이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구와 뜻과 권세와 소망과 경험과 기도를 필요로 하였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전을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며 경전의 지침에 따라 질서있는 생활을 하며 감사를 드리거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실제로 떡을 먹으면서 그것을 돌로 생각할 수 있을까? 혹은 생선을 보고 그것을 뱀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혹은 계란을 쥐고서 전갈의 침을 느낄 수 있을까? 나는 우리가 그러한 환각을 느낄 수 있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식이지 왜곡된 사물 그 자체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의 산물이 아니므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방법을 더 잘 아는 방법을 말씀하신 시대에서 생활하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아니하고 차가운 돌을 맛보거나 전갈의 침을 느낄 수 있으며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는 수도 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의 축복을 인식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떡과 생선과 계란을 먹으며 성장할 수 있다. *

독서, 거룩한 특권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나는 아주 어렸을 때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고 이런 책은 동물에게 친절하게 대하자는 열의를 나에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나는 상상력을 키워 주는 책과 모험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내가 “폼페이 최후의 날”을 갖게 된 것은 아직 매우 어렸을 때였으며 그 책이 나의 흥미를 몹시 끌었기 때문에 나는 1937년에 파문힌 폼페이시를 방문하고 내 눈으로 옛날에 베스비우스 화산으로 생긴 참화를 직접 볼 때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부친인 앤드류 킴블은 오랫동안 테저렛 주일학교 연합회 회원으로 봉사했으며 청소년 인스트рак터 잡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수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그 잡지 안에 있는 기사와 거기에 연재되는 이야기를 읽는 데 많은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큰 모험은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유년기부터 간단하게 되어 있고 삽화가 들어 있는 성경 이야기를 즐겼으나 원래의 성경은 그 길이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수자 영 게이츠 자매로부터 목표를 받을 때까지는 그것을 회피했습니다. 그

자매는 스테이크 대회의 상호향상회 모임에서 연설했는데, 성경을 읽는 것의 가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매는 결론으로서 성경을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은 모두 손을 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청중 중에서 번쩍 든 손은 극히 적었고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을 공부했습니다.”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고 그 위대한 책을 읽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하여 충실히 매일 계속했습니다. 나는 내 혼자 사용하는 다락방 침실에서 주로 읽었습니다. 나는 밤늦게까지 앉아서 잠들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약 1년 뒤에 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에 도달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가져다 주었는지! 영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또한 그 내용에서 내가 받은 전반적인 모습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나에게 처음으로 성경을 읽도록 영감을 준 것에 대하여 나는 게이츠 자매에게 반 세기 이상이나 지금까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노인이든 젊은이든 간에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 *

나는 아이오와주를 지나는 성도들을 위한 길을 예비하기 위해 개척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후 나는 나의 가족인 아내와 세 명의 자녀를 위해 나부로 돌아가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나는 320킬로미터나 떨어진 아이오와주로 그들을 이동시키고는 그곳에 남겨 두고 식량과 다른 필수품을 얻기 위해 160킬로미터를 지나 정착지로 되돌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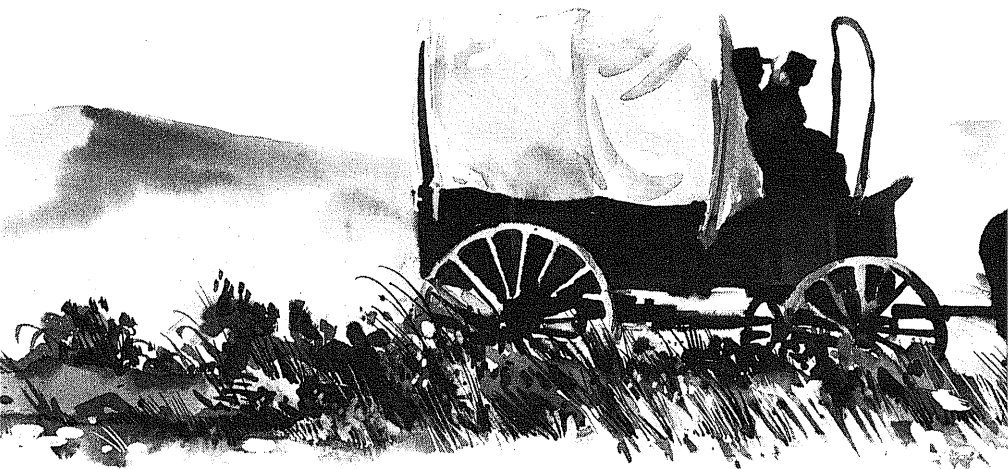
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로 오도록 나의 가족을 데리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의 아내와 두 자녀는 도착한 다음날에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초라한 오두막에서 피난처를 찾긴 했으나 물이 있는 곳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고통받는 나의 가족을 위해 물을 얻으려고 애를 썼으나 허약했으므로 실패했습니다. 밤이 되어 나의 가족은 열이 심하게 났으므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심한 시련을 겪게 되자 나는 마음속에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주님이 악마로 하여금 심한 곤경에 처해 있는 나를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어떤 감리교 지도자가 지나가면서 내가 매우 나쁜 위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편안한 집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풍부하게 갖고 있으며 내가 “물론교”를 비난하면 나를 도와 줄 것이라고 분명

주님이 마련해 주심

제이콥 햄블린의 경험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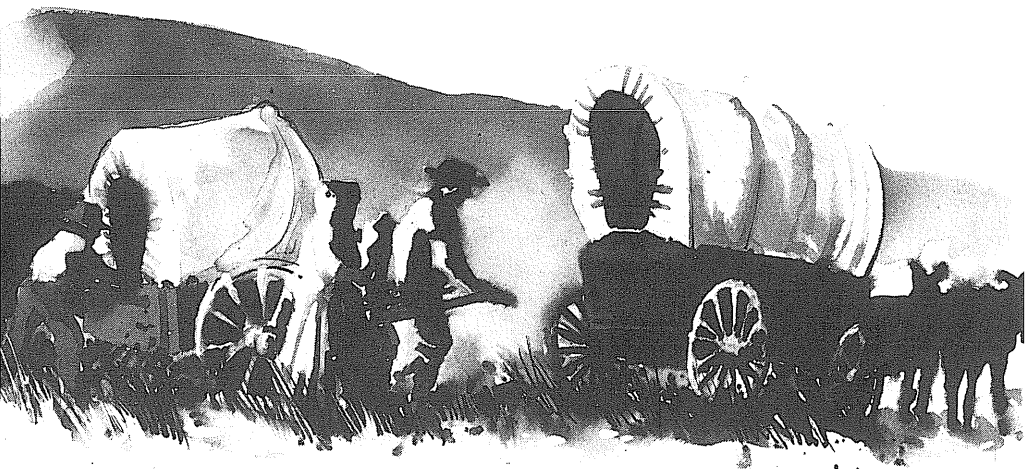
히 말했습니다. 내가 거절했더니 그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후 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를 돌보아 주도록 어떤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나서 윌리엄 존슨이라고 하는 남자가 12리터의 물이 든 항아리를 갖고 와서 내려 놓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나는 낮 동안 탈곡기를 돌리며 일하느라 지친 몸으로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잠자리에 누웠는데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내게 말해 준 어떤 것

이 있었어요. 나는 항아리를 들고 커스터씨 집의 우물로 가서 여러분을 위해 이 물을 갖고 온 것입니다. 이제야 나는 집으로 가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군요. 내 집에는 환자들에게 좋은 병아리와 다른 물건들이 풍부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곧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날 메추라기들이 수풀 속에서 나왔으며 너무나 쉽게 잡았으므로 나는 어려움 없이 내게 필요한 것을 골라 잡았습니다. 그후 나는 성도들의 진영에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식량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이 이야기는 어느 무명의 독신 여성에 관한 것인데, 그녀는 유명한 박물학자인 루이스 아가씨즈 박사가 런던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자 자기는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녀의 불평을 듣고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독신인데요 하숙집을 경영하고 있는 언니를 돕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맡아하시나요?”
 “감자 껍질을 벗기고 양파를 다지는 일이랍니다.”

박사가 말했습니다. “평범한 일이지는 하지만 그런 재미있는 일을 할 때는 어디에 앉아서 하십니까?”

“부엌 계단 밑에 앉아 합니다.”

“그럼 발은 어디다 올려놓습니까?”

“수장 벽돌 위입니다.”

“수장 벽돌이 무엇입니까?”

1970년 말일성도 신학 연구원 교사에게 한 말씀에서 발췌



계속해서 배움

매리온 디 행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박사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하셨습니까?”

“15년입니다.”

“여기 내 명함이 있습니다. 수장 벽돌에 관해 무엇이든 나에게 글을 써서 보내주시겠습니까?”라고 아가씨즈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박사의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고 그 벽돌은 진흙을 구워 만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정의만으로는 아가씨즈 박사에게 글을 써보내기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실컷이를 한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수장벽돌은 유리화된 고령토와 함수알미늄 규산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으나 호기심이 나서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유리화라는 말에 관해 알아볼 수 있는때까지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뒤에는 박물관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바닥에서 깨어나와 유리화라는 날개를 달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발을 내딛게되자, 이번에는 함수라는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지질학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흙층을 만들게 된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 연구하였습니다. 어느날 오후 그녀는 벽돌장에 가서, 120여종이 넘는 벽돌과 타일의 역사와 그렇게 많은 종류가 생기게된 과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다음 그녀는 책상 머리에 앉아 수장 벽돌과 타일을 주제로 36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썼습니다.

아가씨즈 박사로부터 회답이 왔습니다. “부인의 글은 내가 이제까지 보아온 것 중에서 그 주제에 관한 글로서는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별표를 한 세 날말만 고쳐주신다면, 그 원고를 책에 실려드리고 고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고료로 250불을 보냈다는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아래는 “벽돌 밑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개미가 있었습니다”하고 답했습니다. 박사는 다시 “개미에 관하여 아는대로 말해주십시오”라고 써 보냈습니다.

그녀는 개미에 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개미의 종류만도 1800~2500종이나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펜 하나에 세마리나 꿰고도 자리가 남는 아주 작은 개미가 있는가 하면 무엇이든 앞으로 밀어내며 반마일 썩이나 줄을 지어 다니는 2.5센티 미터 정도나 되는 개미도 있고, 눈이 먼 개미, 죽는 날 오후가 되면 날개를 퍼는 개미도 있고, 아낙네가 쓰는 작은 골무로 덮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언덕을 쌓는 개미도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책을 읽고, 세밀히 찾아보고, 깊이 연구한 후에 개미에 관해서 360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써서 아가씨즈 박사에게 보냈습니다. 박사는 그것을 출판하고 그녀에게 돈을 보냈으므로 그녀는 그 일을 하면서 꿈꾸었던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현재 유리화된 고령토와 함수 알미늄 규산염을 밟고 있는듯이, 그리고 그 밑에는 개미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체스터튼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재미없는 일은 없다. 오직 재미없는 사람들이 일을 뿐이다.”

체스터튼 배움시다.

*

지진 속에서 활동한 가정 복음 교사



에이치 브르스 보우먼

1970년 5월 어느 맑은 일요일 오후였다. 나의 동반자와 나는 우리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우리는 안테스 선교부 산하의 투루질로 페루 제1지부에서 성찬식에 참석하기 전에 잠시 쉬며 성경을 연구할 참이었다. 이단 침대의 윗층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침대가 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책상이 넘어지며, 상자가 마루바닥 위로 이리저리 굴렀다. 나는 내가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낱말을 생각해 보았다. 테레모토, 바로 지진이였다. 그것은 한번 듣기는 했지만 결코 사용해본 적이 없었던 낱말이었다.

투루질로우에서의 피해액은 막대했다. 그러나 남쪽 145킬로미터에 떨어진 곳에 있는 어항인 칩보테 주민들은 집을 비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최근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그곳에 온지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회원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흩어진 성도들을 어떻게 찾을까가 걱정이 되었다.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은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 마을에 온 첫 안식일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다.

나는 전지부장과 함께 칩보테에서 6개월간 함께 일했으므로 회원들을 잘 알고있었기 때문에, 회원을 찾고 그들의 필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칩보테에 가라는 요청을 받았다.

칩보테에 도착해 보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도시의 80퍼센트 이상이 평평한 들판으로 변해 있었다. 대부분의 오두막과 벽돌집은 강렬한 진동으로 부서졌고 겨우 서있는 건물들은 심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175명에 달하는 지부 회원들을 모두 찾기란 어려운 일처럼 생각되었다. 모든 경계표가 거의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지부장과 함께 나는 먼저 상호부조회 회장인 허마나 시가로 자매의 집에 가서 그곳에 짐꾸러미를 맡겨두었다. 그런후 몇시간 동안 우리는 여기 저기 찾아다니며 수소문하여 성도들의 소재를 알아보았다. 집이 대개 파괴되었으므로 대부분이 집단 수용소에 들어가 있었다. 회원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기 위해 그들의 이웃에게 어디로 가는지조차 밝히지도 못한채 흩어져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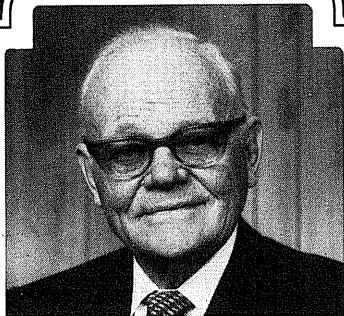
우리들이 약 5시간 동안 걸어다니며 찾은 끝에 어떤 자매의 무너진 집터 위

에 수용소를 만들어 함께 있는 한 무리의 지부 회원을 만났다. 우리가 그들을 보고 기뻐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고는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여전히 나는 낙심되었고 나머지 성도들을 찾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되었다.

나는 회원들에게 지부장단 제 1보좌인 허만도 카더나스 형제를 찾을 수 있겠는지 물어보았다. 내가 수용소의 뒷쪽으로 안내를 받아 가 보니 그는 거기서 그의 자녀들을 잠재우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인사와 감사의 말을 나눈 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부의 형제와 자매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서로 의논했다.

나는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상처와 실망의 빛을 역력하게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뒷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을 끄집어 내어 그것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겸손하게 말했다. “장로님, 장로님이 이곳의 장로 정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행했습니다. 우리는 가정 복음 교사를 보냈습니다!” 그 때물은 종이에는 두 가족을 제외한 모든 가족의 소재와 상태와 건강 상태와 그와 가정 복음 교사가 수집하고 보고한 모든 내용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바로 그때서야 신권을 통한 주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으로 성도들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칩보테에서, 우리는 잘 조직된 가정 복음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간증을 얻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복음 교육의 많은 이유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으며 가정 복음교육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친구가 친구에게

기 기차는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쪽으로 가는 여객들을 싣고 페더 리버 캐년을 이루고 있는 산맥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는 눈이 깊이 쌓여 있었으나 3월의 밝은 태양은 시냇물이 폭포가 되어 바위와 푸른 초원에 떨어지게 하여 숲과 잔디에 푸른 색을 띠기 시작하게 했습니다.

기차 승객 중의 일부는 아름다운 계곡을 보려고 창문에 얼굴을 바짝 가까이 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한 객차에 타고 있던 어떤 승객은 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다음 주 초등학교 대회에서

말씀할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어린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매리온 지 롬니 장로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집어 신약의 마가복음 11장을 펼쳤는데, 거기에는 구세주가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신 것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롬니 장로는 이것을 읽으며 기차의 창문 앞에서 신약을 손에 들고 팔꿈치를 무릎에 피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마침내 구세주가 어린이들을 안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정경이 몹시 아름다웠으므로 롬니 장로는 그 책을 덮고 한껏 뒤로 몸을 제기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커다란 돌이 산허리에서 깨어져 내리면서 그가 앉아 있는 차칸의 유리를 깨고 떨어져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오른쪽 옆구리에 타박상을 입혔으나 심하게 다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롬니 장로는 일주일 뒤에 솔트레이크 레버내클에 서서 “만일 내가 앞으로 기울어 앉아 있었다면 분명히 오늘 여기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롬니 장로는 소년 시절에 교회에 대

한 큰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한 추억을 그의 특별한 친구인 교회의 모든 소년 소녀와 나누고 싶어합니다.

“나는 옛날 어린 아이였을 때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외국땅에 있었으며 집과 도로와 수도 및 지역 사회의 필요 사항을 정부나 교회의 도움 없이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농장과 목장과 과수원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생활 필수품을 얻거나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경 지방에서 그런 원시적인 상황하에서도 부모님은 내가 반드시 초등학교에 참석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가 만났던 바로 그 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방은 예배당으로, 학교로,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사용되던 공공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열성적인 교사들과 그들이 가르쳐 준 노래와 공과 및 특히 강을 따라 산보했던 것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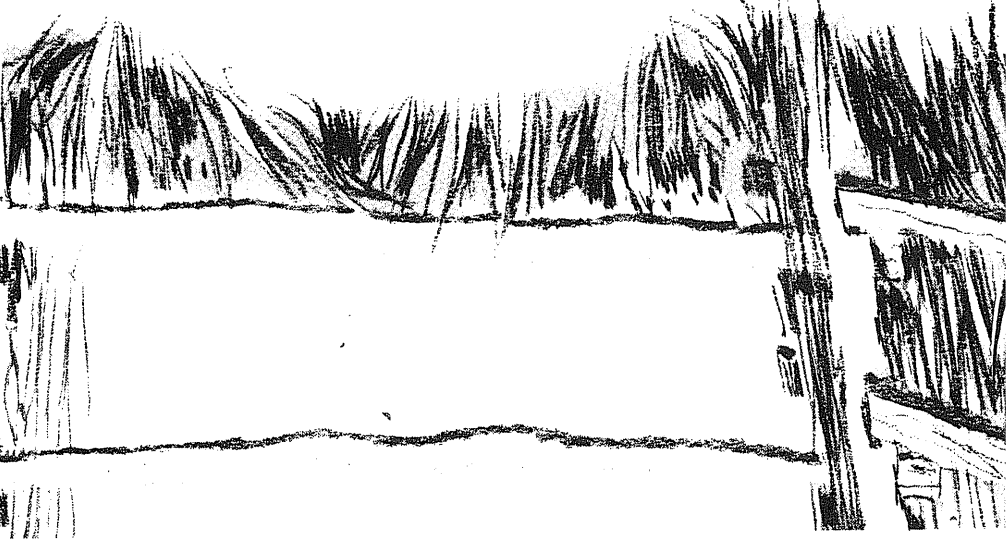
가까운 언덕의 풀로 덮인 매끄러운 비탈을 올라가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여름에 소낙비가 쏟아진 뒤의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맨발과 발가락 사이에 시원한 모래를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 배운 교훈과 열망은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 있었고 나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찬송가에서 ‘오 사랑스러운 아침’, ‘하늘에서 온 천사’,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오 높은 영광 보좌’ 등의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런 복음의 노래를 배운 것에 대하여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나의 교사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언제나 이런 찬송가는 잊혀지지 않고 나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현재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수없이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이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하늘에 오르기 위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





떨어지는 별들

아이어리스 신더가아드

제 이슨 시 조운즈는 젖은 코우트의 깃을 올렸다. 그는 덤불 밑에서 더 멀리 기어 가려고 애썼으나 여전히 차가운 비가 새어 들어 그를 적셨다.

제이슨은 “내가 다시 따뜻함을 느낄 때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1833년 11월 어느 날 추운 밤에 제이슨은 그들의 곤경이 시작된 7월의 그 더운 날을 회상했다.

그날 아침에 제이슨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양식을 구하러 미주우리주 인디펜덴스로 가야겠다. 부서진 울타리를 고쳐라. 그리고 이제 너는 열한 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네 어머니와 제인을 보살펴야 한다.”

그날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제이슨은 길 옆의 울타리를 고치다가 말이 달리는 소리를 들었다.

제이슨은 손을 들어 눈을 가리면서 길을 내려다 보았다. 많은 남자들이 말

을 타고 그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남자들이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제이슨은 몇 정의 소총과 권총을 보았으나 대부분은 채찍이나 곤봉을 갖고 있었다.

이 소년은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폭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부모님이 성도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때로는 아이들이 다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인에 관하여 속삭이는 것도 들었다.

말을 탄 사람들은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소년을 지나쳤다. 그 사람은 제이슨 가까이에 말을 세우고는 이렇게 소리쳤다. “너 물론 소년이나?”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이렇게 외쳤다. “네 가족에게 꺼지라고 말해. 너희들은 미주우리주 잭슨군에서는 필요없어.”

제이슨은 가만히 서 있었고 그 사람



은 말을 타고 가버렸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이슨은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야기하고는 “아버지, 왜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우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잖아요?”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슬프게 보였다. 그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설명했다. “아마 그들은 너무 많은 물몬이 여기에 살려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제이슨은 그 여름의 나머지 기간은 자기 농장에서 평화롭게 지냈다고 기억하지만 많은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다시 인디펜덴스로 갔다. 몇몇 물몬, 지도자와 그 지역에서 선출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있었다.

제이슨의 아버지는 떠나기 전에 미소를 띠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네 어머니와 제인을 돌보아라. 곧 돌아오마.”

그러나 2주일이 지나도록 제이슨의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 다 되어갈 때 제이슨은 길로 걸어갔다. 그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바라며 마을 쪽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제이슨은 아버지 대신에 어떤 사람들을 보고 겁에 질

렸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닫았다.

그는 말하기 전에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이슨은 조용히 “어머니, 어떤 남자들이 와요.”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가 고치고 있던 샹시가 바닥에 떨어졌으나 알지 못했다. “제이슨, 아마 뒷문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빨리 서둘러 나가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체격이 큰 어떤 남자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너희들 몰몬은 나가! 너희들 집을 불태울 거야!”라고 소리쳤다.

제이슨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때 바깥의 마당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제이슨은 그 큰 소리는 울타리와 헛간과 기타 바깥 건물을 부수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제이슨은 어머니가 자신과 어머니의 쇼울을 찾는 것을 도왔다. 그는 바구니를 잡고 거기에 식품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그 큰 사람이 바구니를 잡아 채고는 고함을 질렀다. “가! 이 집이 불에 타서 너희들을 삼키기 전에 나가!”

제이슨과 어머니와 제인은 밖으로 나와서 길을 따라 달렸다. 그들은 자기 집에 불이 붙어 화염에 휩싸이는 것을 보기 위하여 몇 번씩 멈추었다.

그날 밤에 그들은 집을 잃은 다른 여인들과 아이들을 만났다. 그들은 진눈깨비로 덮인 불탄 초원을 가로질러 갔다. 그들이 멈추어서 쉬려고 할 때마다 말탄 남자들이 그들을 쫓아 냈다.

쫓겨 난 사람들은 미주우리강을 향하여 북쪽으로 갔다. 그들은 어느 날 밤 늦게 강에 도착했다.

강둑에는 가구, 상자, 식량, 동물 및

많은 사람들의 강을 건너기 위하여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복적거렸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작은 나룻배 한 척뿐이었다.

어두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이슨은 어머니와 제인과 헤어졌다. 이제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제이슨은 수풀 밑으로 물러갔다. 그는 말탄 사람이 “너희들은 필요없어!”라고 외친 7월의 그날부터 일어난 모든 것에 관하여 생각하면서 말할 수 없이 불쌍해지고 외로웠다.

그때 제이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다. 그는 진흙 속에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결국 그는 졸았다. 그러나 강둑에 있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잠을 깨고 수풀 밑에서 기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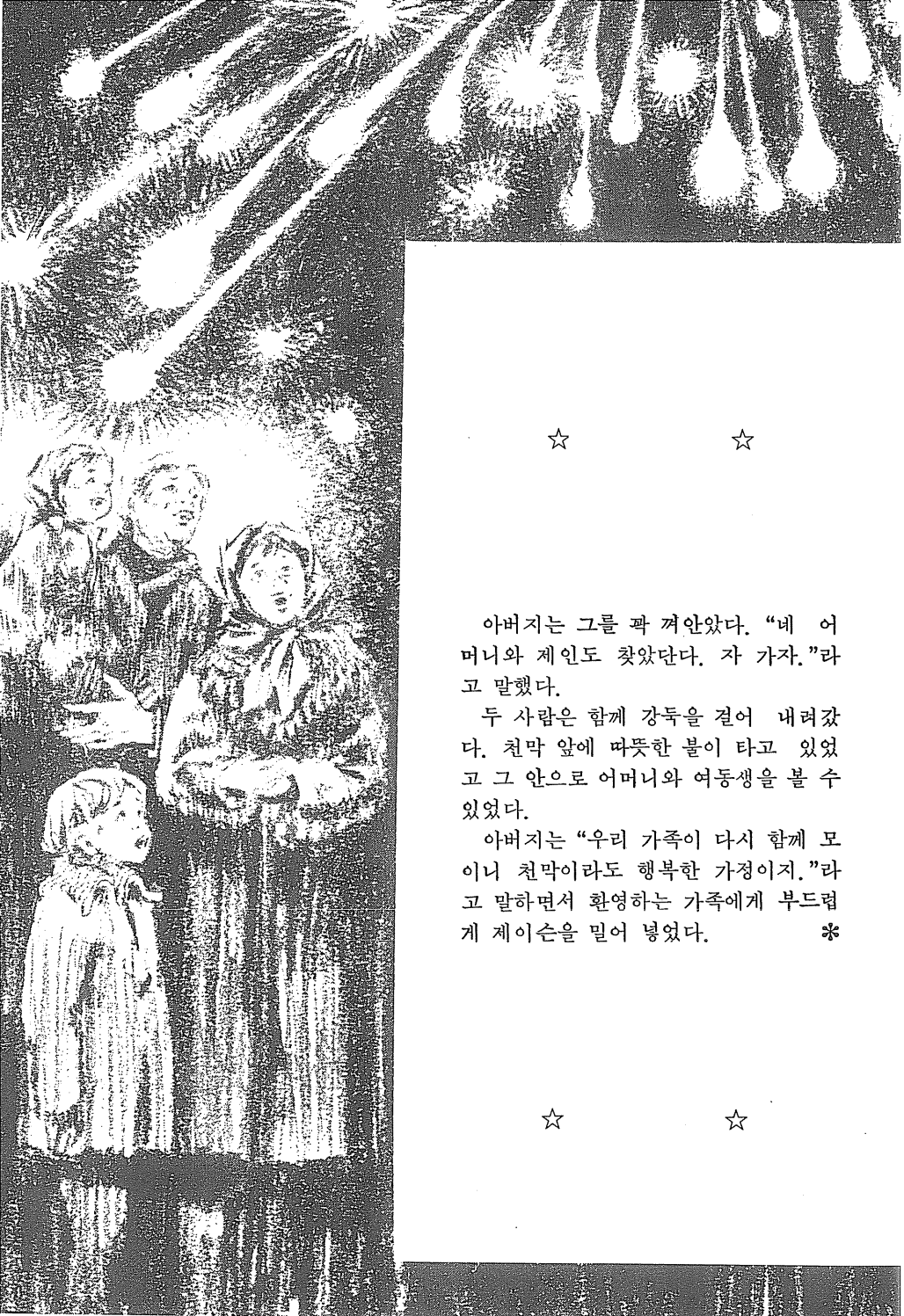
비는 멈추었고 모든 사람이 위를 보고 있었다. 제이슨도 위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깊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빛나는 불꽃 속에서 밑으로 줄을 그으면서 별들이 떨어지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치 별들이 그자리에서 폭발해서 지구를 향해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제이슨에게는 마치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이 사람들 옆의 강 속으로 막 내려오려는 것같이 보였다.

차츰 이 장엄한 장면이 멈추자 제이슨은 다시 자신이 처한 곤경을 생각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코우트를 당기면서 떨었다. 바로 그때 그가 자기 어깨에 손길을 느끼고 올려다 보니 아버지가 서 있음을 알았다.

“아버지, 만나게 되서 정말 기뻐요.”라고 말하면서 그는 흐느꼈다.



☆

☆

아버지는 그를 꼭 껴안았다. “네 어머니와 제인도 찾았단다. 자 가자.”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강둑을 걸어 내려갔다. 천막 앞에 따뜻한 불이 타고 있었고 그 안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모이니 천막이라도 행복한 가정이지.”라고 말하면서 환영하는 가족에게 부드럽게 제이슨을 밀어 넣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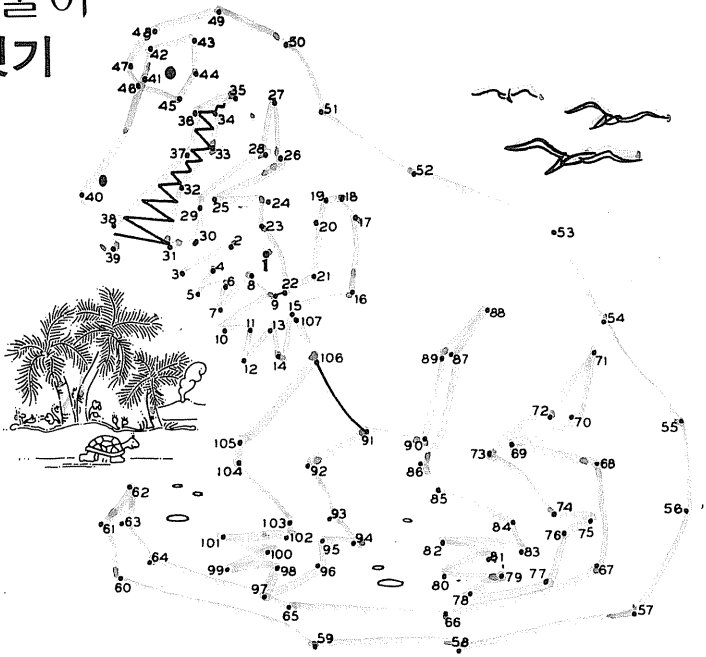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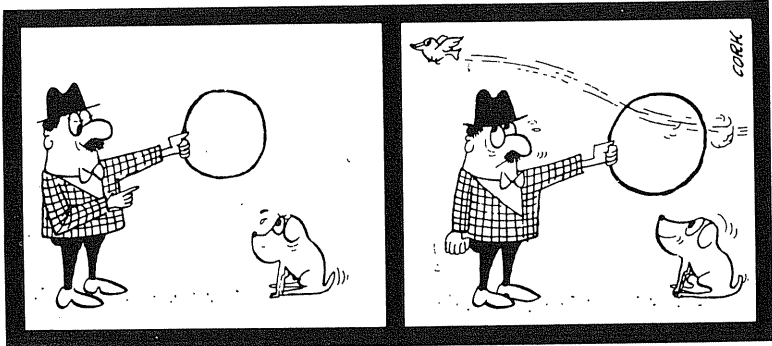
심심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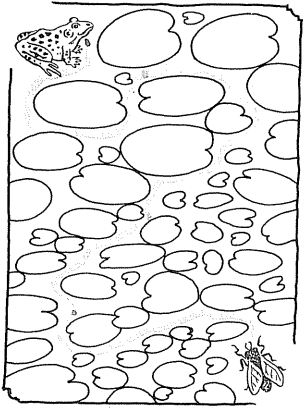
점 잇기

캐를코너



다음 점을 번호대로 이으면 공룡을 그리게 됩니다
점이 있는 곳은 모두 색칠하세요





개구리의 저녁 식사

윌트 트랙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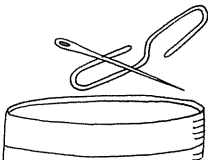
개구리가 물에 떠 있는 잎을 밟지 않고 파리를 잡도록 도와 주세요.

강철로 만든 바늘이 물에 뜰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 특별한 기술을 보여 주기 위해 바늘과 클립 및 물이 거의 가득 찬 물컵이 필요하다.

첫째로 클립을 그림처럼 구부리고 바늘이 아랫 부분의 머릿쪽을 가로질러 균형을 취하여 떨어지지 않게 한다. 바늘을 잡고 있는 클립을 가만히 낮추어서 바늘이 물에 뜨게 한다. 클립을 물 속에 조금 더 깊게 낮추어 바늘이 흔들리지 않게 조심해서 빼낸다.

주의 : 바늘을 물에 내려 놓을 때 반드시 수평이 되게 한다. 한쪽 끝이 먼저 물 속에 들어가면 바늘을 뜨게 하는 표면 장력이 깨져서 바늘이 가라앉게 된다. (프렌드 1975년 4월호, 23페이지)

바늘을 띄움



리차드 래터

교회의 역사를 알아

셰어런 화이트헤드 및 투우브 람빅센

밑에 나오는 사건 중에서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을 골라 거기에 1번을 적는다.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먼저 있었던 사건에 2번이라고 쓰고 다음 사건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한다.

가. 교회가 뉴욕주 케이에트에서 조직되었다.

나. 브리감 영이 평원을 가로질러 개척자들을 인도했다.

다. 모로나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다.

라.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터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

마. 나부 신전을 헌납했다.

바. 요셉 스미스는 1805년 12월 23일에 버몬트주 윈조군 쇠론읍에서 태어났다.

사. 교회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 이주했다.

아. 칩체 요한이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다.

자. 성도들이 나부에서 쫓겨났다.

차. 요셉 스미스가 숲속에서 시현을 보았다.

카.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은 일리노이주 카테지에서 순교했다.

타. 요셉 스미스는 금판, 우림과 돌땀, 가슴판을 보았다.

파. 질퍽질퍽한 늪지대가 아름다운 나부시로 바뀌었다.

답 :

가 : 7 나 : 13 다 : 3 라 : 6
 마 : 10 바 : 1 사 : 8 아 : 5
 자 : 12 차 : 2 카 : 11 타 : 4
 파 : 9



후보 투수

데이비드는 전 운동 경기 기간에 걸쳐서 어린이 야구팀에서 활약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 팀에서 정규 선수로서 투수가 되고 싶었다. 그는 시합이나 연습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나 형이 시간을 낼 수 있을 때마다 같이 공을 받게 하곤 했다. 심지어는 텔레비전을 볼 때도 야구 클러브를 끼고는 거의 자동적으로 공을 던져 넣었다가 빼곤 했다. 어떤 때는 어머니가 식사하라고 부를 때에도 클러브를 벗는 것을 잊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가 장갑을 벗고 손을 씻고 식탁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종종 있었다.

야구 경기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코우치가 사진을 찍고 특별한 연습을 하기 위하여 어느 일요일 아침에 야구장에 모여야 한다고 모든 꼬마 선수들에게 말했다. “나는 일요일에 올 수 없어요.”라고 데이비드가 말했다.

“오는 게 좋아. 이는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나서 내년의 우리 팀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야.”라고 코우치가 말했다.

일반적으로 데이비드는 야구 경기나 연습이 끝나면 잔뜩 흥분해서 집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늦게 돌아왔으며 가족이 말을 걸어도 별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드물게도 일주일 동안 늘 조용했으나 일요일에 야구장에 가지는 않았다. 월요일에 연습을 했고 그후에도 계속 연습했다. 마침내 내년에 누가 그 팀에 속할지 테스트하는 날이 왔다.

코우치가 데이비드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우리 팀의 정규 투수 중의 한 사람이 될거야. 그렇지만 경기가 있을 때마다 뛰어야 할거야. 우리에게는

네가 필요해. 즉 때로는 일요일에도 경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야.”

데이비드는 “나는 일요일에는 경기를 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 너는 정규 투수 대신에 후보 투수가 되어야 할거야.”라고 코우치가 말했다. 그래서 그다음 기간에는 늘 그렇게 되었다. 데이비드는 시합에서 공을 던질 기회도 가끔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 그 팀의 다른 소년들은 일요일에 경기를 했으나 데이비드는 가족과 함께 주일학교와 성찬식에 참석했다.

데이비드가 10살이 된 봄에 코우치는 새로운 경기 기간을 시작하고 그 팀의 선수를 뽑기 위하여 소년들을 모았다. 그는 “데이비드, 금년에 우리는 정규 투수로 네가 필요해. 그러나 때때로 일요일에도 경기를 할 필요가 있을거야.”라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그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와 그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했고 자기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용기를 갖기 위한 도움을 구하는 특별한 기도를 했다. 다음날 그는 코우치에게 자신이 다시 후보 투수가 되어야겠다고 말했다. 그 코우치는 그냥 머리를 흔들 따름이었다.

몇 주일이 지났고 데이비드는 모든 연습에 참여했다. 어느 날 밤에 코우치가 소년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그 팀이 가끔 일요일에도 경기가 있지만 데이비드는 일요일에 시합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어쨌든 그가 우리 팀의 투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만일 너희들이 동의하면 우리는 데이비드

를 평일의 정규 투수로 하고 일요일 시합을 위하여 후보 투수를 둘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니?”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데이비드는 숨도 쉴 수가 없었다. 팀의 선수들은 잠시 동안 주저했을 뿐이고 곧 모든 어린 선수들이 진심으로 그 계획에 동의했다.

✽



내 친구 리이너

제니퍼 알 그랜트

내가 부모와 함께 새로운 이웃이 있는 곳으로 이사갔을 때 내 생활은 리이너 버어드라는 어린 일학년 학생에 의해서 변했습니다.

그때 나는 스물한 살이었는데, 10월의 어느 바람 부는 날에 버어드 집안의 어린이들과 축구를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교회갈 준비를 갖추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호기심에서 리이너에게 그녀의 교회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 이전에 그 교회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리이너는 나에게 그들의 모임(초등협회)에 같이 가서 그날 별님반에 참석하자고 졸랐습니다.

내가 리이너와 함께 그녀의 어머니에게 가서 같이 가도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버어드 부인은 미소를 띠면서 “물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리이너는 내가 침례받기를 원하느냐고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이 예상하지 않았던 리이너의 질문에 그녀의 어머니는 좀 당황했으나 나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협회에 갔으며 나는 당황했으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었습니다. 대학생이 초등협회에 참석하는 것

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함께 노래를, B-76)”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바로 그 주에 자매 선교사들이 리이너의 집에서 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토론편에서 그들은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는지 알기 위하여 기꺼이 기도하겠다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겠지만 이미 그가 예언자였다는 것을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으로부터 매우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3주만에 침례받았습니다.

침례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초등협회 제 2보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교회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참되며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예언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 귀중한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나의 간증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나는 아주 귀중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했던 작은 소녀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

내 일생에 관한 영화

맨 린드스트롬

대체로 사람들은 휴가를 얻으면 몇 주일 쯤 집을 떠나 여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기를 좋아합니다. 연주 일정으로 우리는 한번 집을 떠나면 몇달 동안이나 집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내가 솔트레이크로 돌아가 좋아하는 아가씨와 함께 영화를 보며 떠들어대면 피로가 풀리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영화는 인기있는 우주 과학 공상 영화였으며 그 영화를 보려면 장사진을 친 줄 끝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것 저것 생각에 잠길 수도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는 교리와 성약 88편의 일부가 떠올랐습니다. 88편은 심판의 날에 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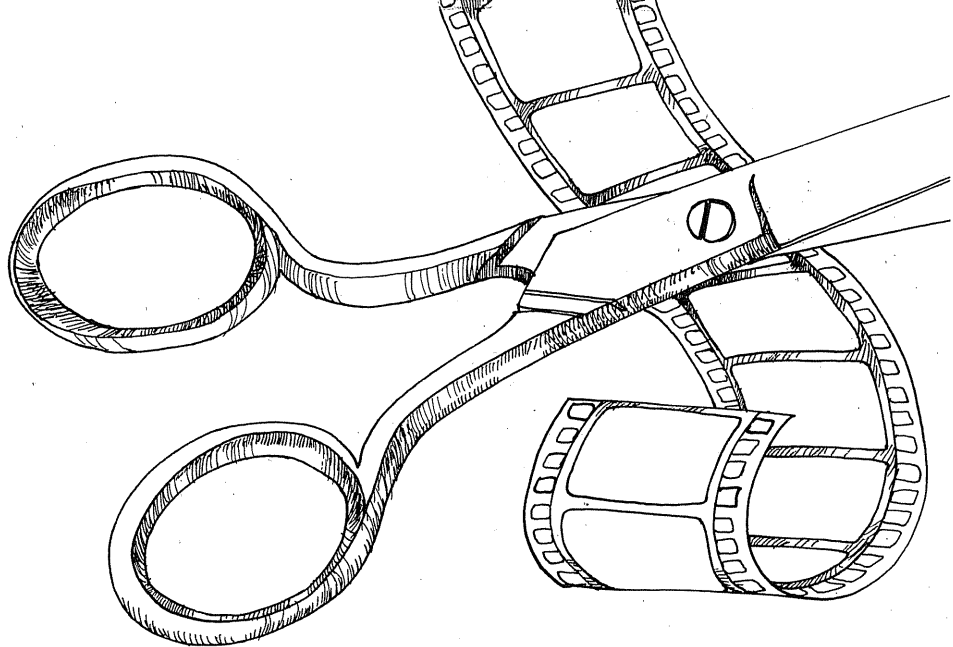
108절에서 110절까지는 우리의 은밀한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질 위대한 들어남에 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구는 우리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들어날 것임을 말해주며 심판이 공정함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의 일생의 여정이 다시 재연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형 영사막에 비추는 장편 영화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에는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음 속에 그러한 생각이 스며들

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내 일생에 관한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영화를 보기 위해 서 있는 것처럼 흥분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와 함께 보고 싶게 될 것인가? 아니면 감독님이나 친구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구세주를 모시고 갈 것입니까?

이와같이 시작된 단순한 생각은 점점 확대되어 나의 인생과 내가 만들어 나갈 영화제작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영화가 끝나고 테이트 상대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마음 속에 길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나는 이에 관해서 수주일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영화는 과연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누가 나의 영화의 배우가 될 것인가? 맨 린드스트롬 이외에 누가 “지상에서의 맨 린드스트롬”의 주역을 맡을 것인가? 나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낙심이 되거나 의기가 소침해질 때면 내가 주연 배우가 되는 영화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단지 카메라가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담고 있음을 상기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곧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복의 추구”라는 영화에서 우리는 누구나 이 지상에서 행한 모든 사소한 일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화는 내가 행한 일뿐만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했다 라면 이를 수 있었을 일까지도 보여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주어진 시간을 보다 현명하게 사 용하도록 결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 니다.

나는 영화 제작에 관해 조금 연구해 보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제작자의 책임 에 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제작자는 모든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는 막대한 경비를 들 여야 하며, 그래서 큰 모험을 하게 됩 니다. 영화가 성공하면, 수억원의 돈을 벌지만 실패하면 일시에 거지가 되고 맙니다. 나도 기회를 잡아 모험을 해 보려고 하므로, 나의 영화의 제작자임 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승영이나 음 부나 아니면 그 중간의 어느 곳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나는 제작을 감독하고 영화 현지 촬영 장소를 정하고 영화의 질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영화 제작자는 또한 많은 보조 배우 를 기용합니다. 나의 생의 영화에도 어 떤 면에서도 이와 같아, 이 영화에 누 가 나올 것이며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바로 내가 결정하는 것입 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와 결혼 상대자 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에서나 감독은 중요한 임무 를 말합니다. 사탄은 시키지 않아도 언 제나 감독이 되려고 합니다. 실상 그는 부탁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성신 역시 우리를 감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독하는 것은 모두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 은 아닙니다. 사탄은 열심히 뛰어 드나 영원한 보수를 요구합니다. 성신은 순 결과 의로운 삶의 원리에 엄격히 순 중하기를 요구합니다. 나를 감독하게

하는 힘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신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갖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나의 연극에서 곡예 따위를 하는 매역은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이 잘못 되고 위험하게 된다고 해도, 나는 나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지상에 와서 직접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이 역을 맡길 수 없습니다. 모든 장면을 내가 연기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기만하면 나의 필름을 편집해 줄 사람은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영화 예들들면 “스타워즈”와 같은 것은 여러 각도에서 많은 장면을 찍어 최종에는 가장 우수한 장면만을 뽑아 편집합니다. 만일 처음에 잘못된 것이 있다해도 그것은 반복 노력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쁜 장면은 잘라내고 간격을 줄이는 유사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헐리우드에서 면도날을 가지고 필름을 자르고 또 있는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주님의 방법에 의해서 제거된 일은 어떠한 것이든 영원히 사라지며 다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교성 58 : 42 참조)

만일 편집(회개)을 마친 후 필름의 대부분이 잘리워 없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나는 훌륭한 작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각 장면을 훌륭하고 재미있게 만든다거나 구성을 전개시켜 영광스러운 클라이맥스로 유도해 나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는 일 없이 앉아서 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지를 매일 기록하는 것은 필름의 진행 과정을 기록하는 것 만이 아니라 일상의 목표를 열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연하기 전에 장면을 미리 적어두는 것도 됩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의 대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기도는 나의 영화에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장면을 꾸미는 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이 아름답고 훌륭한 에피소드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이 지상에 오게 해주시고 내게 힘과 믿음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로 많은 일을 행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일생에 관한 영화 제작에 관한 이러한 생각은 그와같은 일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와같은 공상영화를 제작한다면, 그 영화가 영화관에서 상영될 때 그 영화를 보고자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맨 린드스트롬은 선셰이드 앤드 레인 트리오의 가수이다. 그는 칠십인이기도 하며 교회의 일반 선교사로(특별한 임무가 부여되지 않는 선교사)로 성별되었다. 이 이야기는 노변의 밤 모임에서 한 말씀을 발췌한 것이다.

인생의 기로에 서서

크리스 제이 헨더슨

나는 어려서부터 사관학교에 가겠다고 꿈꾸어 왔다. 나의 부친은 공군 직업 군인이었다. 나는 여름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비행에 관해서 배우기도 하고 공군의 생활에 관해서 잘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큰 경험이 되었다. 나의 부모는 내가 어렸을 때 이혼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자주 볼 수는 없으므로 아버지와 함께 만나는 시간은 내게는 더없이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사관학교에 원서를 제출했다. 나는 학교 성적도 좋았고 제사 신권 정원회에서 활동적이었다. 그해 봄에 나는 학생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사관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졌다. 사관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킴블 대관장님께서서는 교리의 모든 젊은이는 선교사를 마쳐야 한다고 권고하셨지만, 나의 경우는 예외라고 생각했다. 만일 내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들이면 사관학교에 들어갈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관생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곧 사관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나는 사관학교에서 훌륭한 말일성도로서 생활하면 그것이 바로 선교 사업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이러한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속삭임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생각을 억누르기 위해 노력했다.

학기가 끝나자 나는 부친과 함께 여름을 보내기 위해 버지니아로 갔다.

부친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부친께 사관학교의 입학에 가능성에 관해 의논드리자 그 전망은 더욱 밝아졌다. 아버지가 격려해 주심으로 의욕이 더 커졌다. 그래서 나는 장차 사관 생도가 되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려야겠다고 루이스턴으로 돌아왔다. 그해 여름은 여러가지 재미있는 일로 말미암아 선교사로 봉사해야겠다는 결의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집으로 돌아온 첫 일요일 옛날의 달갑지 않는 생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나는 성신이 나에게 다시 임함을 느꼈으며, 성령의 영향력에 관해서 강한 간증을 받았다. 그날부터 나는 사관학교로 갈 것이냐 선교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으로 가득찼다. 나는 틈나는대로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었다. 그 축복문에는 언젠가는 내가 선교사로 봉사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관학교에 대한 소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생각할수록 혼란만 거듭되었다.

그 즈음에 나는 전감독이었던 틀맨 감독과 여러 번 상의하며, 생각을 분석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정하고자 했다. 그는 내가 결정하는 바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으나, 결정에 도움은 되어주겠느냐고 말했다. 그가 나를 믿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 기도에서 나는 어떤 확신을 얻었다.

1976년 10월 10일 간증 모임에 왔었는데 공군 사관학교는 뒤로 미루더

라도 선교사로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윗저고리 호주머니에 수개월 전에 제사 정원회에서 받았던 선교사 지침서를 갖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어 스페인어로(아무도 알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내가 19세가 되면 선교사로 나가겠다.” 나는 날짜를 적고 그것을 접어두었다. 그리고는 수주일 동안 이것에 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결심을 했다. 나의 양심은 조금도 부담이 없었다.

사관학교 생도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때는 바로 이때였다. 나는 합격했다. 나는 친구들과 교사에게 수년동안 노력해 온 것을 이제와서 거절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설명하기 어려웠다. 나는 1시간 30분 동안 톨만 감독과 의논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크리스, 네 결정에 너는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중 나는 의무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선교사로 봉사해야겠다는 열의를 갖게 되었다.

이제 나의 부친에게 말씀드려야 할 차례가 되었다. 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몰랐다. 부친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친에게는 공군이 최고였다. 나는 나의 결심을 부친에게 말씀드리면 나와는 다시 말하려 들지 않을 것임이 분명했다. 나는 끊임없이 부친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 기도했고 또한 부친이 나의 결정을 받아들여 주시게 되기를 기도했다.

내가 부친께 나의 결정을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걸었다. 부친의 음성이 수화

기에서 흘러나오자, 나는 전화를 끊어버릴까하고 생각했다. 부친은 저 쪽에서 계속 불려대셨다. 내가 나의 결심을 말씀드리자, 약 30초 동안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침묵을 지켰다. 나는 분노와 실망의 말씀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므로 계속되는 침묵은 나를 더욱 안절부절하게 했다. 마침내 부친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크리스, 그런데 선교사란 무엇이지?” 그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얼마만한 기간이 걸리게 되며,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물었다. 내가 설명해 드리자, 부친은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라면 나도 네 결심을 지지해주마”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놀라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아랫층의 나의 방으로 내려갔다.

그 이후로 나는 부친과 계속적으로 서신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그는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해주었다. 나는 부친께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며 부친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전보다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다.

나는 부친과의 대화 이후에도 나는 이러한 생각을 여러 번 했다. “나는 사관학교의 입학 자격을 얻었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내가 죽는 것은 아니며,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다.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레인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선교 사업을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

편집자 주 : 이 이야기는 헨더슨 장로가 선교 지역으로 떠나기 전에 적은 것이다. 그는 현재 한국 서울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의 선교 사업

키크 피 로벤버리

1964년 7월 5일 일요일이었다. 나는 이집트의 피라미트에 올라보았고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만져 보기도 했고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보기도 했으며 레바논의 고대 바알백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기도 했으며 감람산에 올라가 보기도 했다. 이제 나는 그리스아테네 여행을 마치고 내일밤이면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침점점 심을 먹고 교회를 찾으려고 전화부를 보았으나 찾을 수 없어서 걸어서 아테네시를 돌아다니며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전에 관광여행으로 이곳에 온 적이 있었다. 이제 일반 관광객들이 가보지 않는 장소를 찾아보게 될 것이다.

오후경에 나는 고대 아덴의 커다란 중앙 시장인 아고라에 왔다. 아고라 지역은 너무커서 평지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시가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남쪽의 높은 언덕에 올라가기로 했다. 나는 꼭대기에 올라가 아테네의 지도를 꺼내어 보고 나서야 이 언덕이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쑥 튀어나온 바위에 앉아 이미이 광경을 내려다 보고 있던 다른 몇몇 사람들과 함께 폐허가 된 성전과 넘어진 아고라의 기둥 가까이 있는 언덕 위의 아크로폴리스를 보았다. 10여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맑고 푸르고 구름한점 없는 하늘 빛을 맑은 에에게 해가 더욱 짙푸르게 물결치고 있었다.

날씨는 아주 훌륭했다.

나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영국의 관광객들이 떠드는 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크리켓 팀이 시합에서 6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라디오의 불륨을 크게 틀어 나는 들을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서로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약 30명 정도의 관광객이 있었다. 그중 절반은 영국인이었고 그의 사람들은 그리스인이었다. 그들은 대부분이 젊은 부부였다.

라디오 방송은 점점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곧 잡음이 들렸다. 그러자 그는 라디오의 스위치를 꺼버렸다. 십대의 소녀들은 나를 쳐다보더니 “당신은 미국인이군요. 그런데 크리켓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요?”

나는 그녀에게 내가 한때 물몬 교회 선교사로서 영국에서 봉사했으며 그 당시 크리켓 게임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물몬 교회와 다른 교회와의 차이점에 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내 전에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느낌이었다. 무엇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을 계속하시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알게 될 테니까.” 나는 말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어서서 이야기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는 머뭇거리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말일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교회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워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물문이라는 말은 별명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망서리고 있는데, 저 멀리 아테네 시가의 많은 교회의 십자가가 눈에 띄자 무슨 말을 해야할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에 관해 질문하셨지요. 바울이 이곳에 왔을 때 그는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냐 1900여년 전에 이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했던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요 17:3)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은 자신을 다시 알렸으며 그의 교회를 회복했으며, 그를 증거할 새로운 사도들을 불렀다고 말했다. 나는 열렬히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사실이 옳다는 사실을 확고히 간증했다. 나는 논리적으로 한 교회만이 옳다는 것을 지적했다 권능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이 권능이 신권으로 회복된 경위를 설명했다. 나의 지갑에서 데이비드 오 맥 케이 대관장의 사진을 꺼내어 그분이 예

언자였음을 간증했다. 그들도 그와같은 영적인 인도는 오늘날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며, 그들은 질문을 했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해 내가 전에 없던 열성을 갖고 교리를 설명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내가 전에 선교사로 봉사할 때 길에서 경험한 바로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었으며 대부분이 지나쳐 버렸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약 30명이 조용히 앉아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한마디 한마디를 빠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들은 진실로 복음을 아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3시간 동안의 토론을 마치자 저녁의 찬 공기가 밀어닥쳤다. 나는 내가 말한 모든 것에 관해 간증했으며 12명 이상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호텔로 돌아와 성경에서 사도행전 17장을 폈다.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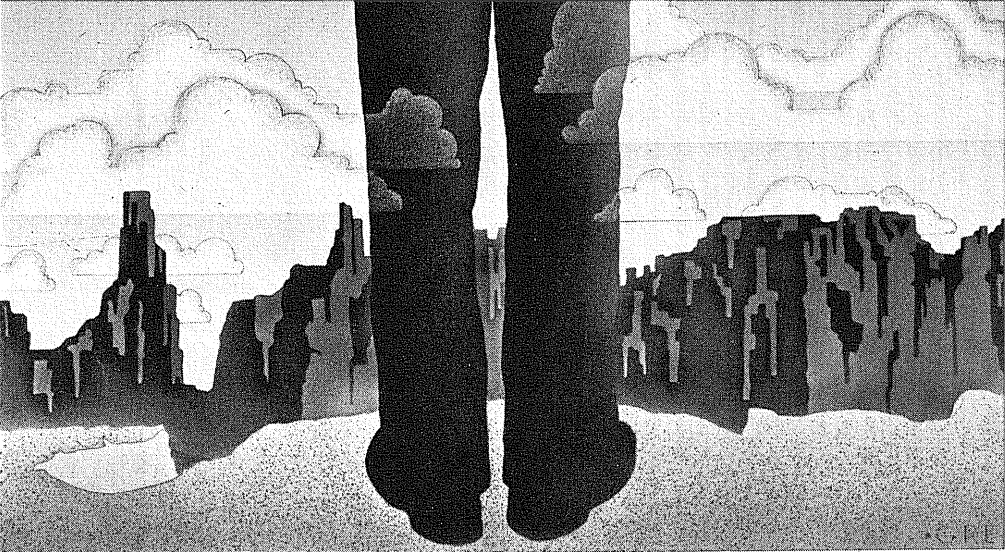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 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텐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행 17:19-22)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한 선교사의 개인적인 경험을 맛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것이다. *





인간이 경험의 세계를 넓혀 모험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발전하지 못한다

로이트 지 데릭 장로
칠십일 제일 정원회

주변의 산들의 밝은 색깔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근처 언덕에 깔려 있는 노랑색, 갈색, 회색 돌과 멀리 보이는 산의 푸른 빛은 오직 자연만이 그려낼 수 있는 정경이었다. 화가가 그렇게 그려냈다면 너무 과장했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나는 큰 벼랑끝에 서 있었다. 내 발 밑에 있는 곳은 흰 사암층이었다. 내 발밑에 깔린 흙은 칙칙하게 보였으나, 같은 돌이라도 멀리서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인생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저 멀리 회색 빛 실과 같은 콜로라도 강이 골짜기 사이를 뚫고 휘돌아 가고 있었다. 내려다 보고 있자니 아찔해져서, 균형을 잃을까봐 뒤로 물러섰다. 위를 올려다 보니 183미터나 떨어져 있는 협곡의 다른 쪽이 보였다. 우리가 문명 사회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생각이 미치자,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하고 나는 자문해 보았다.

우리는 콜로라도 강 골짜기에 다리를 놓기 위해 철교를 가설하는 공사에 계약했다. 우리는 전에는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기사의 계산과 설계만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하에서 내가 과연 그 엄청난 모험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 다만 의구심만이 일어날 뿐이었다. 나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경지를 모색하는 조직의 지도자에게 용기나 판단력이 부족하다면, 그 작업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오랜 세월을 걸쳐 노력한 대가로 전문가의 명성을 얻게 된 우리에게도 벼랑만큼은 참으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곳이였다. 이제 와서 돌아설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인간이 경험 세계를 넓혀 모험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을 쫓아 내었다.

그런 벼랑 틈에는 어떻게 다리를 놓을까? 먼저, 우리는 강에 줄을 걸쳐 놓았다. 그 줄은 가는 로프를 끌어 당겨 걸치기 위해 사용되었고, 차츰 굵은 로프, 가는 철사, 굵은 철사순으로 끌어 당겨, 마침내 양쪽에 높은 철탑을 박아 직경이 76밀리미터가 되는 굵은

쇠줄을 연결했다. 우리는 어떤 것은 30톤이나 무게가 나가는 쇠 부품을 제 위치에 맞추어 놓기 위해 다른 필수 부품과 함께 장대한 연결 장치를 이용했다.

아치는 철탑이 받치고 있었으며, 강위로 600톤에 달하는 철골이 올라가서야 아치가 맞닿을 수 있었다. 아치가 이어지자, 그 비중은 협곡의 벽의 기반이 바탕을 이룬 거대한 콘크리트 기초로 옮겨지게 되어 철탑을 치울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단계는 정확하게 취해져야 했다. 철골부품은 하나라도 빈틈없이 맞추어야 했다. 모든 움직임은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각 공정과 구매, 철골 준비, 철골 설계, 물자 확보, 수송, 운반 건립 등을 조정하기 위한 복잡한 계획이 세워져, 정확한 철골 부품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위치에 닿을 수 있어야 했다. 인생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도 성공을 하려면 훌륭한 기준에 맞추어 사물을 계획해야 한다. 다리를 놓는 일에서나 인생 설계하는 일에서, 어려운 일일수록, 더 높은 기준을 세워야 한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날 내가 서 있었던 벼랑을 알 길이 없을 것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은 전에는 통행할 수 없던 길을, 이제는 협곡의 이쪽 편에서 다른 편까지 약 8초동안이면 건널 수 있다. 나는 그 벼랑에서 일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자신이 하겠다고 결심한 일은 무엇이나 잘 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자신에게든 어려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일이 될 수 있듯이, 지금은 평범하게 생각되는 일이 전에는 상당

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활해 나가자면 벼랑위에 서 있을 때와 같은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알 길이 없는 내일은 우리 마음에 의구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구세주는 최후의 만찬시에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 전에는 한번도 해보지 않던 주님의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야 했다. 이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두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 : 27)

복음이 회복된 후에, 구세주는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을 말일의 제자들에게 넘겨 주실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시고 “어린 양아, 두려워 말라. 내가 올 때까지 왕국은 네 것이니라.”(교성 35 : 27)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니파이에게 전혀 해 보지 않은 일, 곧 배를 만들어 대양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니파이는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알고 있었지만, 영적인 힘과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 그의 형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배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 의혹과 두려움이 일었을 것이다. 그러나 큰 신앙을 가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만사를 다 행하라고 이르신 것이라면 내가 능히 이를 수 있으리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물을 명하여 육지가 되게 하라고 명하신다면 그도 역시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리라.

“주께서 그토록 크신 권세를 가지셨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사람들에게 행하셨음이 사실일진대, 내게 배를 만들

것을 어찌 가르칠 수 없으시겠느냐?”(니파이일서 17 : 50-51) 이 처럼 자신 있게 말한 다음에,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은 주님의 도움을 받아, 훌륭한 배를 만들어 미대륙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한 준비하라고 명하셨다. 주님은 말일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 : 30)고 명했다. 사도 바울은 시현을 받은 후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관례대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지내며 성역을 위해 준비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준비하라고 명하셨다. “나의 말을 전파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연으려 힘쓰라.”(교성 11 : 21)

일단 우리 스스로 준비하면, 신앙의 원리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고자 준비한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앙이다. 정력적인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 : 13)고 말씀했다. 그 말씀에는 그 인품에 서려 있는 강한 힘을 나타내고 있다.

준비성과 신앙과 두려움없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한 발 한 발 날마다 훌륭한 기준에 따라 수행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경험 세계를 넓혀 모험을 해 나가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다. 신앙과 용기와 주님을 의지하여 준비해 나가는 인간은 누구나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개인을 만족시키며 동시에 인류에 공헌을 하는 것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

지도 원리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윌리엄 지 다이어

기업이나 교회나 가족이나 어느 조직에서든 지도자가 겪게 되는 문제점은 그와 함께 일하거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그들 개개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음을 어떻게 알려 주느냐 하는 것이다.

교회를 포함하여 어떠한 조직이든 목표가 수행되지 않으면 오래 존속될 수 없다. 지도자는 업무를 중심으로 한 활

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지도자는 활동이 계획되고, 프로그램이 설정되며, 자료가 구비되고 과제가 주어지고 이행되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업무를 수행하고 과제를 맡아 행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은 상급자가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 일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상실된다.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인정받고 이해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분위기속에서 훌륭한 계획과 조직 및 높은 기준의 일이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일에 비추어, 다음 경우에는 이러한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자.

1. **직분에 대한 부름.** 부름을 주는 사람은 부름받는 사람의 욕구나 관심사, 두려움 및 질문 사항은 무시한채 그 일의 중요성과 필요 사항, 과제 등에 대해서만 말하는가?

2. **구두 접견.** 구두 접견을 행하는 사람은 가정 복음 교육을 행하는 사람이나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의 내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깊이 이야기하지 않고 가정 복음 교육을 위하여 가족이나 조직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관심을 두고 질문하는가?

3. **신전 추천서발급을 위한 접견과 십일조 결산 접견.** 대부분의 와드나 지부에도 신전 추천서나 십일조 결산 용지가 비치되어 있다. 대체로 회원들은 감독과 이 기회를 통해서만 감독과 개

인적인 접견을 갖는다. 각 사람에게 좀더 시간을 내어 감독이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할 수 있을까?

4. **반 활동.** 교회 공과 시간 중에, 반원들에게 공과가 배우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느낌을 주는 교사들이 간혹 있다. 공과는 흔히 비인격적인 것이므로 학생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다. 현명하고 능력있는 교사는 학생들이 복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느끼는 문제점이나 질문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5. **지명.** 정원회나 와드의 지도자는 각자의 요구 사항을 생각하며 임무를 지명해 주는가? 정원회 지도자가 정원회 회원들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 것이다. “자, 우리는 이 일을 책임지고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일을 계획해 나가면 여러분께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도 이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나 교회나 가족이나 어느 조직에서든 지도자가 겪게 되는 문제점은 그와 함께 일하거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그들 개개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음을 어떻게 알려 주느냐 하는 것이다

관심을 보이는 방법

개인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인정받으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교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1.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 흔히 교회 활동을 하는데서는 서로 시간에 쫓겨, 서두르며 “우리 모두 바쁘니까, 빨리 빨리 하고 이 문제는 넘어 갑시다.”하는 기분으로 행동을 하는 수가 많다. 어떤 직분에 대한 부름이나 접견 또는 구두 평가 등에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개인적인 관심사를 찾아내고, 그 일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계획되어야 한다.

2. 개인적인 문제를 물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말하기를 피한다. 업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말하여 개인적인 관심사로 문제를 전환시킬 수 있다. “형제님께서 가정 복음 교육을 하면서 느끼신 점을 알고 싶습니다. 밝히기를 꺼리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군요.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잘 되어 나갑니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문제점이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이 때에 지도자가 보기에 다른 사람에게 폐단이 되는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다.

3. 이해하는 마음으로 듣는다. 어떤 사람이 영향받은 사물에 관하여 열심히 말하기 시작하면, 지도자는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도자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알지 못하셨군요?” “내가 형제님(또는 자매님)의 경우라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가로 막게 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같은 입장이 되어 귀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그 문제나 사태를 파악하고 왜 그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도 상대방에게 참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4. 무슨 일이든 기꺼이 행한다. 어떤 사람이 느낀 바를 진심으로 토로했을 때, 지도자가 가장 흔히 하는 말은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하고 묻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흔히 접견 받는 사람을 궁지로 몰게 된다. 그는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며,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 어색하고 당황한 느낌에 그는 “도와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든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게 된다.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묻기 보다는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 그는 이해심과 관심과 동정심을 표명할 수 있다. 그는 사랑이나 감사의 말로 대응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볼 수 있겠다. “가정 복음 교육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나도 함께 가 보겠습니다.” “다음 번 공과는 제가 맡겠습니다. 형제님은 그 동안 쉬면서 받을 지켜봐주세요.” “어려운 문제이군요, 감동님께 말씀드리고 대답을 듣도록 하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나타낼만한 행위를 실행해야 한다.*

누구나 원하는 위니 선생님

알 브르스 린지

나는 위니 군더슨 자매와 같은 사람과 함께 생활해 보지 못한 말일성도 청소년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30여 년간 유타주 테일러스빌이라는 마을에서 자라난 선택받은 무리속에 내가 속하게 되었음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었다. 그 무리속에 끼인 우리는 매우 초동협회 시간이 되면 어린이들은 다 헤어진 교재와 부름 뜬 눈망울과 커다란 가슴팍을 가진 위니 선생님 곁으로 모여들었다.

선생님은 아이들 특히 남자 아이들을 좋아했다. 우리는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이용하여 장난치며 공과 시간 중에도 게 밋 대로 굴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공과가 지루한 것은 아니었다. 위니 선생님의 공과는 언제나 지루하지 않았다.

20명도 넘는 11세 정도되는 개구장이 소년들에게 개척자들이 겪은 이야기를 그처럼 실감나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을 나는 한번도 보지 못했다.

선생님은 교회 역사를 가장 좋아했으며 그것을 종종 주제로 삼았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말일성도 왕국의 초기의 정신을 그처럼 생생하고 훌륭하게 전달해 줄 선생님은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 우리 어린 마음으로서는 어디서 역사가 끝나고 어디서 위니 선생님이 시작했는지 가늠하기가 힘들었다.

예를 들면, 나는 위니 선생님이 윈터 쿼터스에 있다고 생각지 않으면 윈터 쿼터스를 전혀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없었다. 그리고 위니 선생님을 볼 때마다 개척자 집단 속에서 혹한의 한 겨울을 이겨내야 했던 사람에게서 발산되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항상 위니 선생님께서 솔트레이크 계곡에 몰려든 메뚜기 떼를 몸소 때려잡는

모습이라든가, 황소를 몰아 평원을 건너는 모습이며, 커틀랜드 신전의 건축에 사용하기 위해 가장 귀중한 집기도 아낌없이 바치는 모습 등을 그려 보았다.

그녀는 또한 우리 역시 개척자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공과 시간의 절정은 한 여름에 전에 자갈 채취장이던 곳을 돌아오는 것이었다. 우리는 붉은 포장 마차를 끌었으며, 소녀들은 긴 드레스와 쟁쟁은 모자를 착용했고, 세트랜드 말을 한 두마리 빌리기도 했다. 해질 무렵이 되어 우리도 겨우 우리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정한 위니 선생님의 뒤뜰에 도착하여, 거기서 우리는 소금에 절인 고기와 달지 않은 과자를 먹으며, 개척자 노래를 부르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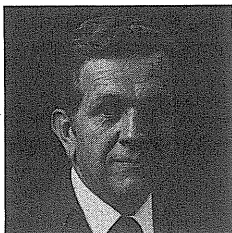
위니 선생님의 집에는 잠시 들리는 사람, 심심해서 오는 사람, 반 위원회 모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일 사이가 없었다. 그녀에게 있어 가르친다는 것은 주례 공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농도는 여러 해가 지나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많은 젊은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가기에 앞서 작별 말씀을 하는 중에 그녀에게 특별히 감사했다. 그러면 그녀는 집에서 계속 격려의 편지를 보내 주어 관심을 표명했다.

14세가 되면 위니 선생님의 청소년 반에 들어가 예언자 요셉이 신성한 숲에서 무릎을 꿇을 때가 바로 그 만한 때였음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도록 초청받게 되는 것은 큰 영광이었다. 그녀가 그 장면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 나갈 때는, 그와 똑같은 신성한 빛이 교실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비취는 듯 했다.

위니 선생님이 비추어준 빛은 여러 사람의 간증속에 살아 남았다. 모든 선생님들이 위니 선생님과 같이 어린 학생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 *

교회 지도자를 따르라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교회 지도자를 따르라”라는 간단한 세 마디 말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안정감을 주는 단순한 사실을 설명하고 강조하려 하지만, 결국은 교회 지도자들을 따르자라는 세 마디 말이 가장 중요한 충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한 가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관한 21절에서 인용해 봅시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음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사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 쿡쿡 찌르며 “그건 틀림없이 유대일거요. 요즈음 그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어”라고 말하지 않은 사실에 나는 항상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 말이 그들의 능력을 어느 정도라도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와 반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 되 주어 내니이까?”(마태복음 26:22)

여러분께서도 충고를 받아들여 잠시 동안 사도와 같은 입장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질문해 보기로 합시다. “나는 스스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이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실천해야 하는가? 총관리 역원을 따르기를 거부하며, 잘못을 저지르는 자 있다면 주어 내니이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는 흔히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수를 받고 일하는 목사나 전문적인 성자가 없습니다. 이 보다 더 뜻깊은 것은 다른 교회처럼 평신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신권을 받고 교회의 성역을 수행하며, 남여가 다같이 여러 보조 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임무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나누어 지게 되며, 이 책임에는 또한 권능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으나, 그 권능의 척도

는 인간이 그 권능을 인정하고 지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인식하고 존중해 주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습니다. 신앙개조 제 5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여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신앙개조에는 복음의 진리가 뜻깊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라는 구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내에서 그 말을 상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스테이크부장으로서 총관리 역원에게서 “형제님은 이러 이러한 일을 해야한다고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사람

이 있습니까?. 오히려 “생각해 보신 후에 제시해 주시면...” 하는 식으로 의사가 전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이렇게 써어져 있더라도 하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을 교회의 더 높은 직에 성임할 때 어떤 영감을 받을 수도 있으나, 보통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의 역원을 지명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는 교회의 지도자들 곧 감독과 스테이크부장, 총관리 역원들도 역시 인간임을 알고 그 약점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지도자에게서 부적합한 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인간적인 요소가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으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충고를 받아들여 잠시 동안 사도와 같은 입장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질문해 보기로 합시다. “나는 스스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주여 내니이까?”

우리들 중에는 기꺼이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의문을 품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실성이 비롯되는 곳

우리가 교회에서 높은 직책에 부름받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충실하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헌신하게 되며 힘차게 나아가며 담대히 이 일을 수행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큰 일에도 충실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왕국 안에서 수행해야 하는 하찮은 일이나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더욱 큰 일에 부름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의 대관장이나 총관리 역원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속한 와드의 감독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와드의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대관장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감독의 권고는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고를 받으려 하는 사람은 대개 감독의 권고를 기꺼이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총관리 역원의 권고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주님의 영감은 그들의 감독에게 오는 것으로, 감독은 그들을 분명하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회원들이 우리에게 권고를 받으려 올 때 참으로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어떤 영감이나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들으나, 그 권고의 말씀을 자기들 편리한대로 바꾸어 결국

은 다른 일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 특권을 질시하며 신권의 권능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함으로써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 : 31-32)

매저 박사의 경험

신권의 권능에 항상 순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브리감 영 대학의 창립자인 칼 지 매저 박사의 경험담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어느 학교 교장직을 지낸 식견있고 지체높은 분이었습니다. 1856년에 매저 형제와 그의 아내와 어린 아들은 손펠트 형제와 그 밖의 여러 개종자와 함께 시온을 향해 독일을 떠나 갔습니다. 그들이 영국에 도착하와 놀랍게도 그는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습니 다. 일행과 헤어져야 한다는 데 큰 실망을 느꼈으며 손펠트 집 사람들도 미국으로 갔습니다. 매저 가족이 영국에 남아 교회의 부름을 이행하고 있는 동안, 이 지체높은 교수는 과거의 직분에 있을 때도 전혀 해 보지 않던 사소한 일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매저 형제 정도의 지체가 높은 사람은 길에서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장로들은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그에게도 짐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매저 형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 마루바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그는 할 수 없었으며, 그의 아내도 크게 감정이 상했으며 실망이 컸습니다. 결국 그는 말했습니다. “자, 그들은 신권을 갖고 있으니, 그들이 내게 가라고 말하면 그대로 해야 하겠다.” 그는 자존심을 꺾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그의 자유의지를 꺾은 것은 아님을 나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저 형제는 순종하였으나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매우 부유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큰 관심을 보이고 매저 형제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 그에게 몇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호텔에서 만찬을 들라고 초청했습니다. 장로들의 테이블 매너를 보고 매저 형제는 몹시 화가 나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라면 밥을 굶어도 좋고 박해를 받아도 좋고, 지옥에라도 가겠다. 그러나 다시는 장로들과 함께 만찬을 들러가지는 않겠다.”

권능을 입은 자

교회의 와드나 스테이크에서 여러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은 부름에 따르는 신권의 권능과 영감의 외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의 스테이크를 재조직하기 위해 얼마동안 총관리 역원과 자리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조직을 도울 기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

다. 매우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얼마 전 일요일 저녁 늦게 어느 스테이크를 조직하고 매리온 지 롬니 장로와 함께 차를 타고 조용히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이야기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롬니 장로가 말을 꺼냈습니다. “췌커 형제, 이 복음은 참된 것이요.”(십이사도의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니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48시간 동안에 한 일은 그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게요.”

나는 마음속으로 그 동안에 있었던 일 즉 우리가 가졌던 접견과 우리가 내린 결정 등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스테이크에 있는 신권 소유자들을 접견한 다음 그들에게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으로 누가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참고로 제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모두 같은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를 이상적인 사람으로 지적한 이유는 그가 경험도 많고 가정 생활도 원만하며, 모든 면에서 민감하고 건전하며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접견이 끝날 쯤에는 두세 사람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접견해 보니 이 사람은 그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 그대로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접견을 끝내고 방을 나가자 롬니 형제가 “음,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오?”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직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을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에 확신을 얻은 롬니 형제도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보아야 할 것 같소. 현재 그 스테이크에 있는

신권 지도자 중에는 새로 스테이크 부장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지요”라고 말한 다음, “나머지 몇 분을 마저 접견해 보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내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그대로 같은 질문과 대답을 받으며 접견을 하였습니다. 이 접견을 마치고 나자 롬니 형제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접견을 끝내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롬니 형제는 다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스테이크를 관리하도록 주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이 바로 이 형제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의심없이 동시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임무는 스테이크 부장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신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틀림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예언에 부름받습니다.

헌신의 시험

우리가 부름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헌신의 척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에 교회 회원들의 신앙은 상당히 많이 시험받았습니다. 1856년 대회 보고를 보면, 대관장단 보좌인 히버 시 킴블 장로가 다음과 같이 말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우리가 선택한 분들의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는 유럽이나 오스트랄리아나 동인도 등지로 지명받은 사람도 있고, 베바다 주

의 라스베가스나 북부지방이나 포트 서플라이 등지로 파견되어 그 곳을 강화시키게 될 분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발표가 있게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교회 회원들은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으로 인해 그러한 부름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의문은 “언제 우리도 가게 될 것인가?”하는 것이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오늘날에도 그와 비슷한 부름이 내려질 때 흔히 많은 회원들이 보이는 반응은 “언제?”가 아니라 “왜?” “왜 내가 가야 하는가?” 일것으로 짐작됩니다.

한번은 내가 헨리 더 모일 회장의 사무실에 있는데, 그가 그날 일찍 신청해 둔 전화가 걸려 왔다. 그는 전화로 인사말을 나눈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무 관계로 근간에 솔트레이크시티에 오실 일이 없으십니까? 긴급히 말씀드릴 중요한 일이 있어, 형제님과 부인을 만나뵙고 싶습니다.

지역적으로 상당히 먼 곳이었으나, 그 사람은 바로 그 다음 날 솔트레이크에서 할 일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나는 그 사무실에 있었는데 모일 회장은 그 때 이 형제에게 그가 교회의 한-선교부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자,” 그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서둘러 결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부름에 대하여 생각이 결정되는 대로 하루나 이틀 후에 제게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이 형제는 아내를, 아내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부부 사이에는 조용히 소리없는 대화가 교환되더니, 눈에 띄이지도 않을 정도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모일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며칠 후에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답은 물론 우리가 부름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일 회장은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습니다. 사실은 이 일이 좀 급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님께서 3월 13일에 웨스트 해안에서 배를 탈 수 있도록 준비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날짜가 11일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그는 아연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없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는 “예, 회장님, 그렇게 알고 조치하겠습니다.”

“형제님의 사업은 어떻게 하지요?” 라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분소 일과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요? 그 밖에 다른 일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겠지요.”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여러 회원들에게서 매일처럼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름에 응하거나 그처럼 부름받은 사람을 지지할만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이켜 볼

여러분께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감독을 지지합니까? 여러분은 스테이크부장과

교회의 총관리 역원을 지지합니까? 여러분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거나, 비난하고, 험담을 하거나 또는 부름을 거절하는 자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여, 내니이까?”하고 묻는 자입니까?

막중한 신권 부름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충실해 지도록 하십시오. 지지하고 축복하는 성품을 기르도록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에 결코 “싫다.”고 하지 마십시오. 권능을 가진 사람이 지명하는 부름에는, 오직 한 가지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분명히 밝힐 수는 있으나, 여러분의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의 부름을 받아 지명받는 일은 주께서 주시는 부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개조에도 그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이 그러함을 나는 증언합니다.

일단 어떤 직분에 부름받으면, 해임될 날짜를 혼자 마음속으로 정하지 마십시오. 해임에는 다른 부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회의 성임될 직책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건대 스스로 해임하는 권능은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임도 부름을 주는 같은 권능에서 오게 되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해야 합니다.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십시오. 시간과 신의를 지키고 신앙을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부름에 관해서 여러분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고 있는 책임에 관해서 겸손하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합당한 표준을 지켜 여러분이 응한 부름에서 말은 책임에 관해 주님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고로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 네 허리 띠를 동여 매며 나의 온전한 갑옷을 입어 악한 날에 견딜 수 있게 하고 모든 일을 수행하여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라.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동여 매며 가슴에는 의의 가슴 판을 달며 내가 너희에게 보낸 나의 천사가 말긴 평화로운 복음의 준비로 신을 신고 일어서라.

“왼손에는 악한 자의 불 화살을 날날

이 끌 수 있는 신앙의 방패를 가지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바른 손에는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성령의 검을 들고 입에는 너희에게 계시할 말씀들을 가지라. 또 너희가 내게 간구할 것은 무엇이든 주는대로 다 만족하며 내가 올 때까지 충실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이끌려 올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되리라.”(교성 27 : 15-18)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지도자를 따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일 내에 교회의 다른 대회가 개최됩니다. 주님의 종들은 여러분을 권고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그 권고를 들을 수도 있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은 그들이 준비한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기 보다는 받아들이기 위한 여러분의 준비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편 38절의 말씀을 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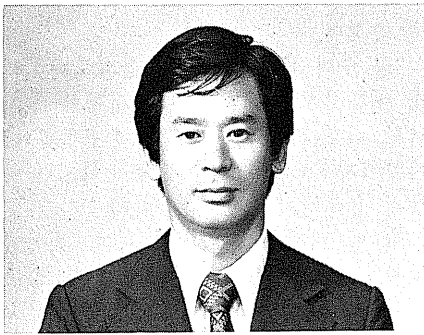
해 봅시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니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

칼 지 매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한 번은 그가 여러 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이끌고 알프스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파른 산비탈을 오를 때 그가 뒤를 돌아 보니 뽕뽕 언 눈 속에 막대기가 줄을 지어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산을 안전하게 넘어가는 유일한 길을 표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막대기에서 그는 무엇인가 인상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들을 정지시키고 그것을 가르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저기에 신권 소유자가 서 있습니다. 저 막대기들은 우리들과 같이 아주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는 약간 구부러져 있는 것도 있으나 그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길에서 우리가 이탈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특히 학생 여러분, 이 교회의 형제들은 예언에 의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젊어서 이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목표에 대해 성실해질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따를 줄 알게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보이드 케이 패커, “교회 지도자를 따르라.” 올해의 말씀 브리검 영 대학, 1965년 3월 23일. 1—10페이지) *



새롭게 갑시다

홍 무 광

서울 북 스테이크 부장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198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설레이는 가슴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창립 150주년 기념 행사로 이루어질 많은 활동과, 대관장단의 주관으로 이루어질 10월의 「한국 지역 대회」, 그후에 있을 동경 신전 헌납 등....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 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발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해서, 우리의 가슴은 벌써부터 방망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1952년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님이 한국을 주님의 땅으로 헌납했을 때만하여도 이 땅에서의 예배는 몇몇 외국 군인 형제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후 특히 1978년 11월 12일 기쁘게 장로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재헌납 이후 이땅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국 73곳의 예배당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 소리는 이 세상이 소음으로 가득 차더라도 주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화음과 힘찬 음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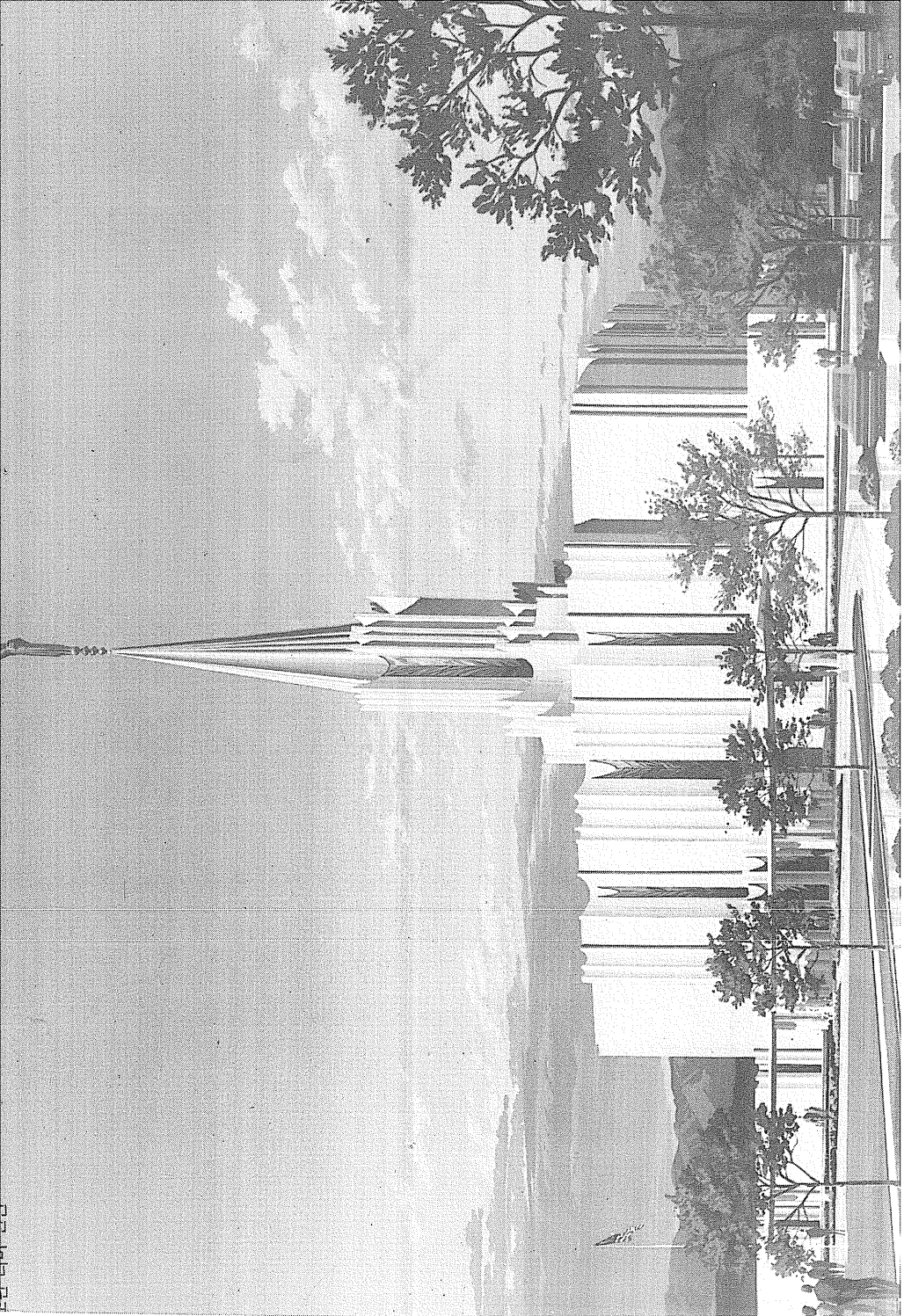
있거나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들 손으로 이루어진 전국의 예배당과 건축을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예배당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고, 더욱 많은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쌓은 많은 것들을 반석으로 하여 올해에 있을 우리의 여러 활동과 모임을 성공시켜야만 하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올해를 마감하는 성탄절 쯤에는 한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여러 선물을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를 위해 -한해의 삶을 성공적인 것으로 이끌기 위해- 저는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몇 가지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가족기도가 그것이며 일주일에 한번 가족이 모여 경전의 교훈을 우리의 생활로 끌어들이자고 제안한 「가정의 밤」이 그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가정 복음과 자매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가정 방문이 그것이며 경전을 매일처럼 상고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참으로 쉬운 일이고 잠깐의 준비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만이 기쁨을 알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장 21절)라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다져진 땅에 물이 피듯이, 강한 확신이어서 부드러운 표정과 몸짓으로도 그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 하나님을 부정해 보더라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의 사랑의 부드러움으로 하여 우리는 다시 그의 품에 감사할 수 밖에 없듯이, 우리의 의욕의 한해를 한결같이 새로운 노력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EYLLING—